

spea^k-out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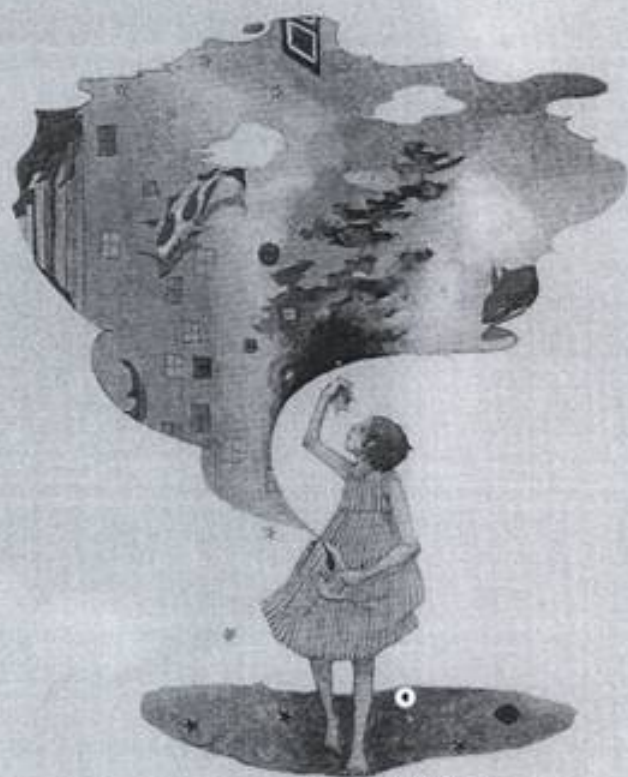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최정 별 · 양김 민지와 함께하는 사람들

학생회를 준비하는

김민지와

사람들

평가



Rie Nakajima



유령처럼 어디에도 몸이 걸리지 않을 때
 끝없는 잠 속으로 감각들이 녹아버렸을 때
 이름 없이, 돌아갈 곳 없이 도망치거나,
 침묵 속으로 흡수되어버리지 않기를 바랐다
 테이프레코더는 툭 툭 끊어지다가는 중간 중간 잡음이 섞여들고 상해버려서
 수백 번 되감기는 동안 끝까지 들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내 안에서 비명을 지르고 회초리질을 하는 목소리에
 자꾸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온 몸 구석구석에 멍이 들었다
 내 안팎이 컴컴해서 눈을 감지도 뜨지도 못했어

잠시 의자에 걸터앉아 피가 흐르고 맥이 뛰는 몽상,
 경계가 흐릿해지자
 깊은 숲의 미로가 열리고 세이렌의 노랫소리가 피어올랐다
 고양이처럼, 새처럼, 인간처럼 날뛰면 안되는거야?
 내 심장은 앵무조개처럼 27개의 격벽을 가지고 있어
 칸칸의 방에는 27가지의 무지갯빛 이야기가 찰랑대며 타고르고 있어

웅덩이에 고인 물처럼 웅크리고 있었을 때
 얼어붙은 입술을 입김으로 녹여주고, 눈과 귀를 빌려주던 사람들
 세상이 다채로운 표정을 지으며 걷고 노래하며 흐르기 시작했다
 대단한 일도 아무렇지 않을 일도 아니라고 말해주었던
 지쳐 나가 떨어져버리지 않게 단단히 붙잡아주었던
 일당백의 그/녀들이 쏟아내던 백년치의 감동

순간순간 마주한 얼굴을 들여다보면
 눈가에, 입가에, 툭 툭 갈라지는 무수한 틈새들
 틈새의 내벽을 응시하고, 손가락을 대어보면
 찌끄만 손가락들이 꼬옥 껴지를 껴며 움튼다

내 몸의 윤곽이 선명하게 꺾적을 그리고
 아, 아, 아! 입을 벌리자 빛과 소리가 쏟아져 내린다





총여학생회 정후보

최정 별 별 (철학과 2학년)

- 2007년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입학
중앙동아리 MAY 활동
2007 헤일리 판 페스티벌 자원봉사
- 2008년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바르셀로나에서 이스탄불까지 배낭여행
- 2009년 21대 총여학생회 에코페미니즘 운동팀 활동
대동제 생태정터 <녹색성장 싫어서 슈렉의 늪을 지키는 카페> 기획단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 참여
2009 여름방학 송도갯벌 생태현장 활동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별
꿈꾸는 사이

학내에 여성주의 정치가 없었더라면 나는 몇 십 퍼센트쯤 더 어색하고 답답했을 것이다.

나 어린 유색인종 여성 배낭여행자가 되어 떠돌 때 낯선 땅에서 겁먹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던 것도 여성주의의 힘이었다. 기대고 비빌 언덕이 되어주었던 고마운 여성주의야.

나와 당신이 지금 이대로 강하고 아름다워서 눈물나게 고맙기에, 생을 꼬집고 깨물고 풍성하게 해보자. 하늘과 바다가 짙은 곳으로 홀로 훌쩍 떠나기도 해보고, 시끌벅적한 축제에 휩쓸려 웃고 울고 뒤엉켜 보기도 하자. 세상이 그리도 안 변할 것 같아도 내가 이리로 움직일 때 여기로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온 몸으로 느껴보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성주의자가 되길 잘했다.

'여성'이란 타이틀이 싫었다. 내 안에 여성을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다채로운 나를 여성이란 한 단어 안에 가두고 싶진 않았다. 나는 가부장제 속에서도 충분히 능력 있는걸, 하며 '여성'이라는 단어에 구애받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외계는 "여자애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 나를 '여성' 이상으로 보려하지 않았다. 좌절했고 슬펐다. 그래서 나는 외계가 원하는 그런 여성으로 위장했다. 그렇지만 '그런 여성'이어도 나는 여전히 불편했고 고통당했고 수없이 갈등을 빚었다. 내가 여성성을 거부하던 여성성을 활용하던 부대낌은 언제나 존재했고 그것이 나를 짜증나게 만들었다. 내가 이상하고 나의 잘못된 것 같았다. 나는 숨었다.

그러다 여성주의를 만났다. 새로운 언어를 만났다. 그 부대낌이 언어를 찾지 못한 이유임을 알았다. 나를 외부의 평가라는 이름으로 타자화하고 배제시키는 가부장제가 문제임을, 구조적인 문제이지 개인의 문제가 아님도 알았다. 나의 잘못이 아님을, 나를 있는 그대로 봐도 괜찮다는 것을, 나를 긍정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었다. 여태껏 할 수 없었던 말들을 차오르는 힘으로 당당히 내뱉을 수 있게 되었다. 나를 온전히 긍정하는 힘, 나는 여성주의로부터 얻었다.

나무

빛에 산란하는
가능성의
이파리들

총여학생회 부후보

양김 민지_ 나무 (간호학과 4학년)

- 2006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입학
간호대 몽울패 <선우굿패> 활동
- 2007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 진학
- 2008년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편집위원회 <예글> 활동
- 2009년 서울 동행 프로젝트 멘토
2009 여름방학 세미나
<여름방학 여성주의 넘실넘실 세미나> 참여
제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 기획단





왜 여성주의 총여학생회인가

축적된 경험들은 나를 답답하게 만들지만 나의 목소리는 가시화되지 않는다

한 학생의 말에 나는 그것이 성취통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내가 좀 예민한 거 같다고 말했다. 기숙사 올라가는 방길이 무섭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가 일찍일찍 다니면 된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선배라고 불렀다. 선배는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말했다. 수업이 끝나고 생리 결석계를 가방에서 꺼냈다. 제출하는 나는 웬지 얼어있었고 받는 조교는 당황해 했다.

이것들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듯 그저 한 개인이 소심해서, 겁이 많아서, 수줍음이 많아서 생긴 - '개인적인' 성격의 문제로 인한 것일까. 그렇다면 이런 경험은 어떨까.

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과내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같이 이야기하던 그녀는 웃으며 우리 과엔 그런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ABCD 점수를 매겼다. 나는 어때냐고 물어보았더니 너는 친하니 그런 것 안 매긴다고 말했다. 내가 @@학과를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와 그녀는 @@학과엔 여자가 많아서 단합이 잘 안되고 경쟁이 심해서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들은 정말 사람들이 말하듯 문제이긴 하지만 정치적으로 학

생회에서 다룰만한 공적인 일은 아닌 그저 '사적인 일' 일 뿐일까.

분명 불편함이 존재하지만 학내공간 속에서 우리는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없다. 힘들게 목소리를 낸다 해도 그저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람들 간 에티켓의 문제로 환원되기 일쑤이며 목소리들은 가시화 되지 않기 마련이다. 그것은 권력구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권력은 계속해서 중심이 아닌 것을 주변화, 비가시화 시키며 권력구도를 재생산한다. 물론 그 권력은 노골적으로 드러날 수도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 권력의 주체와 타자가 그것을 인지할 수도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회란 무엇인가

학생회는 '민주적' '대의' 기구이며 '많은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더 낮은' 단위에서 논의하고 '수렴'하여 '더 높은' 단위로 올리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주 당연하고 아주 합리적인 체계이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전부 다 의문투성이이며 전부 다 의심이 간다. 우리가 가치중립적이라고 믿고 있는 학생회 체계는 사실 체계 자체만이 오롯이 서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대의라는 것은 무엇인가. 정

말로 많은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인가. 많다는 건 얼마나 많은 것인가. 많은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은 정말로 더 민주적인 것인가. 더 '낮은' 단위와 더 '높은' 단위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위 질문 하나 하나의 답은 모두 가치판단이 필요한 것이다. 가치판단 속에서 어떤 의견은 '선택' 되고 '수렴' 되어 보편적인 의견이 되고 '이만 연세인'의 의견이 되지만 어떤 의견은 가시화 되지 않고 애초에 없던 것처럼 배제된다. 결국 가치중립적이지 않은 학생회 체계는 어떤 판단 주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문제가 되며 그에 따라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게 된다.

누가 판단주체인가. 무엇이 가치있게 여겨지는가

나는 학생이다. 나는 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학생회가 필요하다. 그러나 말했듯이 학생회 체계는 판단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한 문장으로 학교 안에서 학생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학생들의 정체성과 실제의 위치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학생을 수식할 수 있는 다양한 형용사, 혹은 명사들이 존재함을 알고 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연장선 위에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 곳에 위치해 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다. 당장 같은 여학생이라 해도 나와 나는 얼마나 다른가. 우리는 그 사실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나 실상 현실에서 말하는 '많은 학생들'은 우리가 느끼고 있는, 생동하고 경험적으로 관계 맺고 있는 나와 나, 그리고 우리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거기서 말하는 '학생'이라는 것은 판단 주체가 멋대로 상정한 어떤 것이다. '~한' 학생 '~인' 학생에서 형용사와 명사들은 제외시킨 그 '학생들'만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혹은 상정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형용사와 명사들이 덧붙여져야만 하는 그 '학생들'만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여대생이란 어휘와 남대생이라는 어휘의 뉘앙스가 꽤 다르다. 그것은 단순히 여대는 있고 남대는 없는 까닭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대학생은 남학생으로 이미지화되고 있기에 여대생은 '특별'하게 '여'대생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엄연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권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판단주체는 결국 남성이며 비장애인이며 이성애자이다. 이러한 판단주체가 특정한 이미지를 '보편', '객관'적으로 상정한 것은 명백한 권력으로 작용한다. 학교 역시 사회의 권력관계에

서 동떨어져있지 않으며 그 권력이 상정한 '보편', '객관적'이지 않은 학생의 목소리는 가시화 되지 않는다. 학내 가부장제에 대한 성찰이 없는 학생회 역시 학내 권력관계를 그대로 답습하므로 내 목소리를 낸다고 하여도 권력을 가진 자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게 되어 버린다. 이것은 또 하나의 불편함이 된다. 내 목소리를 내기 위해 필요로 했던 학생회가 나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회의하게 된다. 나를 제외하고 나의 목소리를 비가시화 시키는 학생회는 정말 내 목소리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곳일까?

이것이 총여학생회가 여성주의 정치를 하는 이유다

'대의'는 선택을 전제한 개념이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특정한 것을 중심으로 만들고 권력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뽑아주었다고 해서, 학생회가 대표성을 위임받았다고 해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편적인 학생들의 개념 자체가 권력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렇게 권력화 된 구조 속에서 개인의 어떤 고유한 경험들은 묻히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은 애당초 학생회의 정체성인 '민주적' '대의' 가구와는 합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중심으로 짜여진 학생회의 개념을 흩어 버리고 권력화에 의해 비가시화 되던 목소리를 드러내야 한다. 또한 그 권력이 작동하는 맥락을 살펴보고 어떤 식으로 권력이 권력 외의 것을 주변화 시키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

여성주의 정치는 소위 '보편적', '객관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주변화 되었던 것들의 목소리를 드러내고 긍정한다. 또한 자의적으로 중심/주변의 구도를 설정하고 중심이 아니라고 여겨지면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든 권력 구도를 문제시한다. 권력적 맥락 안에서 무시되고 은폐되어 있던 말들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우리의 경험은 힘을 얻는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학내의 관계맺음을 새로이 재구성해 나갈 것이다. ●



speak-out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16
일상의
관계와 경험을
여성주의로
재구성하다



학

내에서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인간과, 주위를 둘러싼 공간과, 자연과 만나고 관계를 맺으며 하루하루 생존한다. 오늘, 여기에서 한 마디의 말, 한 순간의 몸짓으로 조우하는 지점들은 깜박깜박 빛나고, 사람들은 이 지점들을 그려모아 저마다의 지도를 그린다. 일상에서 관계를 맺으며 사소하고도 개인적인 경험들을 한다는 건, 다양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의미체계와 욕망이 사회적인 관계의 그물망 속에서 얽히고설키는 일이다.

뒤엎쳐버린 소란 속에서 소리 지르고 내달리며 틈새들과 가능성들을 찾기란 즐거운 일일 것임이 분명한데도, 현재 학내문화에서는 단 하나의 방식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인정받는다. 말하자면 주로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의 경험'에 부합하는 방식이라 하면 될 것이다.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의 건강과 노동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여성이나 장애인의 다양한 육체적, 심리적인 상황과 노동방식은 결핍되고 미달된 것으로 평가된다. 강의실 안에서 여학생의 교육권과 경험은 동등하지 못하게, 부차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여성 비하적 발언이 웃음거리인양, 누군가 참고 넘기면 되는 것인양 툭툭 내뱉어진다. 시선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밤길에 위협을 느끼는 여학생의 경험은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여학생 휴게실을 요구하거나 기숙사 가는 길에 가로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는 필요 이상을 넘어선 추가적인 선택사항으로 간주되고, 그냥 이대로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혜택이라고 비난 받는다.

이렇듯 다양한 생존의 지도를 비가시화 하는 목소리가 일상적으로 딱히 부연설명을 달지 않아도 통용되며, 힘을 가질 수 있는 까닭은 학내 문화가 가부장제 이성애중심 사회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학내 문화를 만들어내는 기준과 규범들은 중심과 주변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별이분법을 공고하게 하고, 젠더규범을 강제하는 여타의 사회적 기준과 규범들과 흡사하게 닮아있다. 학내의 FM, 응원문화와 같은 남성중심적인 관계맺기는 좀 더 우렁차고 뻔뻔하게 좀 더 높은 위치, 발언권과 영향력을 선점해야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학벌권력, 나이권력, 성별권력의 위계의 뼈대로 지어진 획일적인 문화에 '적응'하라는 엄명을 내린다. 때문에 다른 관계맺기로 나와 당신이 살아온 시공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묻혀버리고 만다. 분위기를 해친다거나 소극적이라는 시선이 쏠릴 때, 여학생은 과/반 공동체에서 보란듯이 씩씩한 명예남성이 되거나 화사하게 단장하고 잠재적 연애대상으로 정체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연애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성이 리드하는 대로 지나치게 드세지도 고분고분하지도 않도록 행동하면 상대방이 만족하리라는 각본과 역할수행 위에서 출타기를 해야 한다.

#01 다양한 방식들이 단 하나의 방식으로

학 내 문화와 관계맺음에 대해 문제제기 하지 못할 때, 일상은 나와 당신을 지치게 한다. 지쳐버린 채로는 아무런 다른 이야기를 떠올릴 수가 없다. 내 말과 행동에 불편한 시선이 떨어지기에 입을 다물고 자세를 고쳐 앉고, 나의 고민과 욕망을 바람직한 담론에 맞추어 포장한다. 일상 공간에 나의 경험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니 구석구석 어색하지만 아무렇지 않은 듯 티내지 말아야 한다. 티비에서, 신문에서, 이상적인 여성성과 남성성, 이상적인 몸을 가진 누군가의 탄생과 삶과 죽음의 서사를 지켜보며 나는 어딘가 부족하게 사는 건지 불안해진다.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권력은 여성/남성에 관한 '이상적이고 보편적인' 아름다움과 삶의 양식에 관한 이미지들을 필요로 하고, 만들어내고, 소비함으로써 구체적인 개인의 삶을 손아귀에 틀어쥐는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여성/남성이라는 획일적인 구분을 자연적이고 본질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고,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다는 성별이분법적인 이미지들을 주입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구분이나 이미지들은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지배하기 쉬운 형태에 맞추어 구성된 개념에 불과하다. 손가락 틈으로 빠져나오는 색다른 아름다움과 정체성과 삶을 비가시화하고 두드려 맞추기 위해서 말이다.

따라서 주어진 젠더규범들에 걸맞게 시시때때로 나의 경험을 비교하고 평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별이분법에 포섭되지 않는 나의 경험을 감출 수밖에 없도록 위협이 가해진다. 여대생이라면 일상적으로 화장을 하고 몸매를 유지하는 등 자기관리를 해야 한다는 압력. 이성과는 손만 잡아도 연애편계가 되고, 동성과는 수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도 그냥 친구라는 무성적인 관계일 것이라는 단정. 무시무시한 가해자에게 수동적으로 '정조를 침해' 당하는 경우만이 성폭력이라는 가해자 중심주의, 그러니 밤에는 일찍일찍 다니라는 잠재적 피해자화까지.

일상에 촌촌하게 펼쳐져있는 경계는 경험하고, 경험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발화하는 과정을 단단하게 결박한다. 그 위에서 구체적이고 내밀한 경험 낱것의 모호함은 여성/남성, 감정/이성, 보편/특수와 같은 이분법적인 경계 한쪽의 속성으로 환원된다. 경계를 훌뜨리는 힘으로 펄떡이던 경험은 생명력을 잃은 채, 이야기에 안착하지 못하고 뿔겨져 나가서 침묵 속으로 아무런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린다. 이러한 고통은 여성과 비이성애자를 타자화하고 대상화시킴으로써 지배하고자 하는 가부장제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의 권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다.

#02 일상의 경계는 살을 파고드네, 난 죽어간다 에구구

우리가 #03 쓰고 그리는 이야기여 차올라라



여 성주의적인 관계맺음은 기존 학내의 관계맺음에서 은폐되었던 폭력과 억압을 가시화한다. 어떤 방식으로 '가부장제 이성애주의 각본'이 작동하는가를 파헤침으로써 불편하고 어색했던, 위축되고 수동적이었던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길이 조금씩 드러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긍정하는 각양각색의 목소리를 실어, 다양한 형태로 쓰고 그려나갈 이야기가 차오른다.

무지갯빛 이야기가 경계를 타닥타닥 딛으며 내달릴 때, 애초에 경계를 그어놓았던 무수한 젠더규범들과 성별권력관계는 구속력을 잃는다.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는 것은 경계가 유일하거나 본질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비로소 주어진 이야기를 벗어나, 인간, 공간,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맺음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구성해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 가능성 안에서 성별이분법적인 기준과 규범, 역할 수행을 따르는 대신에, 다른 누군가를 억압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에게 편안하고 적합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규칙을 정한다. 그렇게 교감과 신뢰라는 새로운 전제하에서 꼭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풀어내어본다. 다리를 벌리고 앉아 보고, 무릎을 가만 가만 스치지 않고 팔자걸음을 걸어본다. 웬지 지나친 것 같아 망설이던 눈화장을 하고 하이힐을 신어본다. 나 자신의, 내 눈 앞의 한 사람의 맥락과 경험을 진밀하게 나누고 고민하고 변화할 때 경계는 흐물흐물 흐트러진다.

물론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온전하고도 완벽하게 이해 못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해받은 부분을 통해서, 이해받지 못한 부분을 통해서, 둘 다를 통해서, *ta*를 통해서 존재한다. 스스로가 보여주고, 보여지고, 재현하고, 지향하는 것들을 통해서, 말하거나 침묵했던 지점, 공감하거나 공감할 수 없었던 지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다르게 관계 맺고 경험할 수 있을지, 왜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거나 경험하고자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 나간다는 점이다. 또한 실제로 발화하고 귀 기울인다는 점이다.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우리가 조우했던 지점들을 한 조각 한 조각 이어나가면, 저마다의 이야기가, 지도가 쓰이고 그려질 것이다. 경계가 흐트러진 자리마다 우리의 존재는 꿈꾸고 숨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은 여성주의 정치를 통해 권력관계에 의해 비가시화되어왔던 목소리를 드러내고, 일상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감을 만들어가겠다는 기조로 2009년 한 해 동안 활동하였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21대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21대 총여학생회 평가

【피어나는 공감, 생동하는 목소리 일상, 울림】



Rie Nakajima

권력관계에 묻혀있던 목소리를 드러냈는가

21대 총여학생회가 진행했던 에코페미니즘 운동은 그동안 학내에서 이야기되지 않았던 인간-자연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여성주의적으로 자연과 관계맺는 실천을 활동으로 풀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OT/새터의 기념품으로 일회용컵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텀블러를 공동구매했던 사업이나 대동제 기간에 진행한 생태카페와 같은 시도는 학생자치활동에서 상상할 수 있는 다양한 생태적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송도갯벌 생태현장 활동을 다녀오고 사진전이나 매체를 통해 송도캠퍼스의 비생태적인 면모를 알림으로써 송도캠퍼스를 둘러싼 논쟁에서 삭제되어있었던 자연과 여성어민에 대한 이야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에코페미니즘운동팀만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보다 많은 학생자치단위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깊이 공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학내에서 에코페미니즘을 이야기한다는 것의 의미를 이어나감과 동시에, 단과대 학생회나 과/반/동아리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많은 학생들과 함께 에코페미니즘을 고민해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OT/새터 때의 기념품을 생태적인 것으로 제안하고, 대동제 기간에 일회용품을 덜 쓰고, 로컬푸드를 사용한 생태장터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이를 과/반/동아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이다. 또한 이미 비생태적으로 구성되어있는 학내 공간에 문제제기하며, 로컬푸드 식단의 도입이나 컵 보증금 제도의 실시와 같이 학생들이 일상을 통해 생태적인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다.

또한 21대 총여학생회는 비가시화되어있던 성폭력을 드러낸다는 기조로反성폭력 운동을 진행하여反성폭력 주간 행사를 통해데이트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를

자보전과 강연, 영화, 워크숍 등을 통해 풀어내었다. 이러한 시도는 가해자중심적으로 구성되어있던 기존 성폭력 각본에 문제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이어감과 동시에 기존 성폭력 각본과 결부되어 구성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자화를 전복하고 여성이 주체적으로 섹슈얼리티를 말할 수 있는 **反성폭력** 운동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강의평가 주관식 항목 확충과 학술정보원 엘리베이터 개선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지 않았던 여학생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가 있었다. 이는 각각 그동안 예/아니오의 선택지로만 성평등을 물었던 학교의 관점에 문제제기하고 강의평가에 학생의 문제의식과 당시의 맥락이 충분히 담길 수 있게 했다는 점, 투명한 엘리베이터에서 치마를 입었을 경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여학생의 경험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의 설계방식을 문제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다만 공약 중 하나였던 자기방어훈련 수업 개설의 경우, 워크숍을 두 차례 진행하긴 했으나 정작 수업으로는 개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자기방어훈련의 문제의식과 이어진 몸바꾸기 팀활동과 워크숍을 통하여 보다 일상적인 차원에서 젠더각본에 갇혀있던 몸을 함께 고민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여성주의적으로 소통하여 공감을 피워냈는가

21대 총여학생회는 [춤추는 입술]이라는 매체를 통해 여학생으로 살아남기, 反성폭력, 이성애주의라는 특집으로 여성주의와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공유하였다. 이러한 매체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여성주의를 일상적인 언어로 접하고, 자신의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평가된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 또한 여성주의 매체와 여학생 수첩, 화장실 소

식지 발행을 통해 여성주의 언어를 학생들에게 좀 더 친근하게 풀어내고자 노력할 것이다. 또한 21대 총여학생회가 [춤추는 입술] 3호와 11회 여성제 [나의 성은 X다]를 통해 이야기했던 이성애주의와 젠더규범의 연결에 주목하며,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문화제를 통해 학내에 산재하는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다양한 성적체성을 긍정할 수 있는 장을 열어가하고자 한다.

한편 21대 총여학생회가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소모임 네트워크의 경우 학내 여성주의 소모임을 소개하는 책자를 발간하긴 했으나, 여성주의 소모임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연대라는 애초의 목적과는 다르게 책자 발간이후 활동이 미미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22대 총여학생회 선본 <Speak-out>은 일상적으로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하고, 여성주의적인 OT나 학생자치활동을 함께 만들어감으로써 학생들과 여성주의적으로 소통해나가면서 여성주의 소모임이나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여성주의 담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한다. 또한 여성제와 같은 문화제를 통해 학생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여성주의로 힘받는 장을 마련해나가려 한다.

이렇게 21대 총여학생회 (입술, 울림)이 일상의 권력관계에 문제제기한 과정과 여성주의적인 소통을 만들어낸 과정을 중심으로 21대 총여학생회의 활동을 짚어보았다.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out>은 21대 총여학생회 여성주의 운동의 문제의식을 받아 안음과 동시에,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여성주의 활동을 만들어 가려 한다. 이를 통해 사소화되었던 각자의 이야기가 뭉클하게 차오르고 외로이 쏟아져 나와, 권력구도를 만들어내었던 이분법적 경계를 훌쩍트리는 여성주의 정치로 여전히 가부장적인 학내를 뒤집어보려 한다. ●



<speak-out> 공/약/소/개

speak-out



성폭력 각본을 깨는 반성폭력 운동!

가부장제 사회가 말하는 기존의 성폭력 각본에서는 가해자중심적 시선에서 벗어난 피해/생존자는 '진짜' 성폭력 피해/생존자로 여겨지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성폭력 각본은 '지켜주어야 할' 피해/생존자, 아니면 '지켜지지 않아도 될'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피해/생존자를 재단한다. 이러한 구도는 한편으로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의 성폭력적 시선에 의해 수동적으로 구성된 여성 섹슈얼리티만을 드러낼 수 있게 한다. 가부장적이고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각본을 깨는 것은 피해/생존자의 맥락을 삭제하지 않는 동시에 피해/생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구성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speak-out>은 반성폭력 운동에 있어 단과대 학생회와의 연대를 모색하고 함께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기획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강의실 언어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동성 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과 같이 비가시화 되어온 성폭력을 드러내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칫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혹은 수동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해서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을 열어낼 것이다.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이성애 각본은 남성다운 남성과 여성다운 여성만이 노동하고, 사랑하고, 가족을 이루는 등이 가능하다고 전제하며, 이를 정상적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서 이성애주의가 구성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은 일상의 세밀한 젠더규범으로 작용하여 성별이분법을 공고하게 한다. 또한 이성애중심주의는 각본에서 벗어난 비이성애 정체성을 비가시화 한다. 따라서 이 각본을 꺾으로써 이성애주의 권력이 만들어내는 정상/비정상상의 구도와 그에 따른 차별을 뒤집을 수 있다.

<speak-out> 선본에서는 학내 이성애중심주의를 폭로하고,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를 드러낼 수 있도록 문화제를 기획하고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한다. 또한 비이성애 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시선을 보내고, 이로부터 나타나는 직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학내 호모포비아에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강의실언어성폭력, 인터넷의 호모포비아적 게시물이나 댓글 등 일상을 위협하는 발언들에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할 뿐만 아니라 학외 단체와 연대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문제에 대항하는 활동을 만들어갈 것이다.



감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 올리다



여성의 경험을 사소화 하는 사회적 관계와 의사소통은 나의 몸을 정해진 대로 움직이도록 하고 침묵하게 만든다. 이처럼 개개인이 주어진 젠더규범대로 움직일 때 사회의 질서와 제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재생산된다. 따라서 몸에 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경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부딪쳐보는 시도이며, 이를 통한 변화를 꾀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다양한 몸의 형태로, 다양한 몸짓으로 관계 맺으며 스스로를 긍정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speak-out〉 선본에서는 몸 프로젝트를 꾸려 몸이 익숙해져 있는, 몸을 긴장시키고 지배했던 세밀한 질서와 규범에 문제제기하고 바꾸어 나가는 일상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아울러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몸 바꾸기와 관련된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몸의 가능성을 성찰하고 실천하고 이야기해온 외부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할 것이다.

일상의 작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대학생으로 살아가면서 생태적으로 일상을 꾸려나가기란 쉽지 않다. 인간 이외의 살아있는 존재들은 일상의 표면에서 제거되어 있으며, 돈을 주면 쉽게 살 수 있는 진열장 위의 상품으로서만 존재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여성과 자연에 대한 근대개발주의의 착취와 억압이 기존질서의 가부장성에 기인함을 성찰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순간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 아닌, 서로를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다른 생존의 방식과 삶의 방식을 그려 나간다. 함께 작고 힘 있는 실천으로 일상을 바꾸어 나간다.

〈speak-out〉 선본에서는 에코페미니즘 팀을 꾸려 활동함으로써 생태적인 일상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 또한 생태적인 학생자치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다. 대동제 때 과/반에 일회용품을 덜 쓰고 로컬푸드를 사용하며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생태 장터를 제안하며, 아카라카/연고제 때 쓰레기 및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학교를 생태적인 공간으로 재구성해나갈 것이다. 학내 식당에 자기컵 쓰기와 채식식단·로컬푸드 식단을 건의하고, 특정 지역의 물을 집중적으로 끌어 쓰는 생수산업에 반대하며 식수대 설치 및 관리를 건의할 것이다.



Seacalia

여학생 교육권을 펼치다!

여학생은 몸의 경험을 숨기지 않는 방식으로, 성폭력적 시선이 없는 공간에서, 여성비하적이거나 여성을 대상화하는 내용/발언으로부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때문에 교육권에는 애초에 여학생을 배제한 교육환경을 조성한 학내 가부장적 시선에 문제제기 할 권리, 교육공간을 여성주의적으로 재구성 할 권리가 포함된다. 즉, '여학생 교육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학생들 '만'을 위한 '특수'한 복지나 '혜택'이 아니라 학내 남성문화가 정한 보편에 의해 가려져왔던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펼치는 행위다.

<Speak-out>은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마련하기 위하여 교양 필수 혹은 프레시맨 세미나에 여성학 수업 개설을 추진할 것이며 이와 함께 매체 등을 통해 여성학 수업의 소개와 후기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것이다. 또한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여학생 휴게실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여학생 휴게실이 가부장적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학내 비상벨 작동현황을 파악하고 밤길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하교길의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학교 측과 논의해나갈 것이다. 또한 학내에 부족한 여학생 샤워실에 대한 확충을 요구할 것이다.



여성주의 프리즘! 무지갯빛 목소리

일상의 불편한 경험들이 사소화 되어버리는 학내에서 여성주의 정치와 문화를 담아내고 풀어내며, 학생들이 모여 여성주의로 소통하고 힘 받는 자리를 마련할 것이다. 획일적, 남성중심적인 OT/새터/연고전과 같은 학내행사에 관하여 여성주의적으로 함께 고민해 나가고자 한다. 여학생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실은 여학생 수첩을 발간하고, 총여학생회 소식지를 발간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주의 세미나를 진행하여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여성주의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풍성하게 하고자 한다. 여성제와 같은 여성주의 축제를 통해 즐겁고 유쾌하게 많은 이야기를 팡팡 터트릴 것이다.

halorganon



〈speak-out〉의
집중 공약 설명





www.jessario.com

각본을 깨는 反성폭력 운동!

그동안 이루어진 지속적인 반성폭력 운동은 학내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성폭력, 강요실언어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반성폭력 담론을 만들어왔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 존재하는 성별권력관계를 들추어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폭력에 문제제기하는 과정이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21대 총여학생회 〈일상, 울림〉에서는 학내에서 의심 없이 받아들여져 온 권력관계를 드러내며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성폭력을 이야기했다. 이는 곧 가부장제 사회에 존재하는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담론을 전복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out〉 선본에서는 21대 총여학생회의 반성폭력 운동이 학내의 많은 사람들에게 단어만 익숙해져버린 피해자중심주의를 다시금 고민하고 일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권력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가해자중심성은 너무도 공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성폭력의 개념을 재구성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한편으로 피해자중심주의를 이야기하는 과정은 가부장적 성폭력 담론과 맞물려 여성에 대한 잠재적 피해자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성폭력의 피해자는 언제나 여성일 것이라는 이 사회의 성폭력적 각본 하에서 여성은 언제나 성폭력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처할 것을 요구받아왔다. 여성이 밤길이나 노출이 심한 옷을 피하면 성폭력의 위협은 수그러들 것처럼 이야기되어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폭력의 위협, 그리고 이를 구성하는 남성적 시선과 연관지어서만 가능했다. 여성의 주체적인 목소리는 삭제되어온 것이다.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out〉 선본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부장적 성폭력 각본을 깨나가는 반성폭력 운동을 벌임으로써 기존 담론의 가해자중심성과 피해자화를 해체하고, 피해자중심주의의 관점에서 반성폭력 담론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여성의 주체적인 섹슈얼리티 말하기를 지지하고자 한다.

성폭력은 다양한 맥락에서 존재하고, 발생하고, 재생산된다

강의실에서는 여성비하적인 발언들이 예상하지 못한 맥락에서 튀어나오고,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는 말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말들은 누군가를 수업 공동체로부터 배제하여 끊임없이 불편함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이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기준들에 의하면 이러한 언어성폭력의 피해는 '성폭력'으로 명명되기 힘들다. '직접적', '물리적'인 가해가 없이는 피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가부장적 성폭력 담론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령 누군가가 이를 성폭력으로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고자 해도, 문제적인 발언이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을 떼기는 쉽지 않다. 이 때 강의실 내에 존재하는 분위기는 환경적 성폭력으로 명명될 수 있지만, 사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지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피해의 경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를 성폭력으로 명명하고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를 험사리 깨버리는 이상한, 과민한 개인으로 몰리는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 성폭력 피해와 '인정 받을 수 없는' 성폭력 피해가 존재한다. 누군가의 피해의 경험을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이 사회에 무엇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합의되는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이 사회에서 성폭력을 구성하는 조건은 남성 가해자와 여성 피해자, 물리적인 위협, 성기 삽입 여부와 같이 고정되어 있다. 누구를 가해자로, 누구를 피해자로 볼 것인가가 이미 결정되어 있고, 무엇을 성폭력으로 볼 것인가도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준들은 누가, 어떻게 만든 것일까. 누가 '인정'할 수 있는 주체이고, 누가 성폭력 피해를 '증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가. 성폭력 담론의 가해자중심성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체가 '남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폭력을 '여성의 정조'에 대한 침해 정도로만 이해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합의될 수 있다. 남성이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성폭력 피해는 '보호해주어야 하는 사람이 성적으로 침해된' 경우일 뿐이다. 성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시선은 여성을 보호하거나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할 힘을 가지는 남성의 관점을 바탕으로 만들어져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내면화하며 살아간다.

그러한 가해자중심적인 서술로 인해 성폭력 피해/생존자¹⁾의 경험은 축소되고, 은폐된다. 가해자의 시선으로만 사건을 바라보는 것과 가해자를 알맞은 정도로 처벌함으로써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성폭력 피해/생존자가 느낀 공포와 고통을 부정하게 한다. 성폭력을 가해자중심적인 서사로 설명할 때, 쉽게 피해/생존자에게 2차 가해

1.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라는 명명은 사건의 피해/생존자를 약하고 수동적인 대상으로 만드는 피해자화를 낳을 수 있다. 그러한 문제 의식에서 성폭력 사건의 피해/생존자를 '생존자'라고 명명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해/생존자가 성폭력의 경험 이후에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기반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생존자에게 성폭력 사건은 '생존'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맥락을 지니기 때문에 단순히 '생존자'라고 명명하는 것 또한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맥락을 삭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성폭력 피해를 겪은 이를 '피해/생존자'라고 명명할 것이다.

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폭력 피해/생존자의 고통은 사소화되고, '과민한 개인의 탓이다'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의 책임이 피해/생존자에게 지워진다.

가해자의 행위와 의도에만 초점을 맞추어 성폭력 사건을 '객관적이고 일관적인 서사'로 구성할 수는 없다. 성폭력 사건의 피해/생존자에게는 사건이 다양한 맥락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 사건 피해/생존자가 무엇을 폭력으로 인지하는지, 어떠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는지, 사건 이후에 어떤 경험들을 겪어야 했는지에 귀 기울이고 성폭력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해자중심주의이다. 피해자중심주의를 통해 우리는 왜 특정한 경험만을 성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어떤 피해는 왜 비가시화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성찰하고, 다양한 맥락 속에 존재하는 성폭력 피해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피해/생존자의 경험을 보다 중요한 진술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가해자중심적으로 구성되어온 성폭력 담론을 상대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동안 전형적이지 않다고 여겨져 왔던,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대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피해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언어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의 경험과 더불어, 연애관계에서는 모든 성적 실천이 허용된다고 믿기 때문에 피해로 인지조차 될 수 없었던 데이트 성폭력의 경험, 동성 간의 관계는 철저히 무성적일 것이라는 통념 하에 성폭력의 개념이 성립되지 못한다고 여겨져온 동성 간 성폭력의 경험과 같이 다양한 맥락에서 존재하는 성폭력의 경험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비가시화되어 온 피해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경험을 성폭력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피해는 존재하면서 왜 이에 대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어떠한 권력이 우리의 일상을 비집고 들어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는지를 드러내고, 그러한 권력에 의해 만들어지는 피해를 바라보고 일상의 권력을 성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지 못했던 성폭력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설명할 언어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 애써 없는 척 넘겨버리려 했던 것임이 드러날 것이다.



www.lesbian.com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어디로

앞서 말했듯이 가부장적으로 짜여진 성폭력 담론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범주로 고정시킨다. 그리하여 잠재적인 가해자는 항상 남성으로, 잠재적인 피해자는 항상 여성으로 상정된다. 이는 여성을 남성의 성욕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으로 보는 남성중심적 시선과 맞물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의 책임이 일정 정도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이 속에서 여성들은

언제나 성폭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며, 따라서 언제나 '안전하고 보호받을 만한 여성'임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여성이라면 밤늦게 돌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노출이 심한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성폭력 담론이 어떻게 여성의 행동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은 성폭력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 자신이 행동이 '성적이고 도발적'이지는 않은지 늘 검열해야 한다고 학습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여성이 주체적으로 성, 섹슈얼리티에 대해 생각하고 이를 입 밖에 낸다는 것은 그 자체가 성폭력의 대상으로 스스로를 노출시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섹슈얼리티를 입에 담을 수 있는 것은 '해로운 여성', '성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남성적 시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성들에게 자신이 원하고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자신에게 불편한지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성별권력관계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성폭력의 위협이 여성에게 더욱 크게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섹슈얼리티에 대한 상상과 고민이 가로막혀버린다면 여성들은 어떠한 성적 실천과 상상들이 자신을 즐겁게 하는지, 어떠한 상황들이 자신에게 위협적으로 다가오는지 민감하게 구분해내고 반응하기 힘들 것이다.

남성만을 성적인 주체로 보고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간주하는 이 사회에서 상상하기는 힘들겠지만, 같은 여성이라 할지라도 각기 경험하는 것과 느끼는 것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이 살 속에서 겪어온 과정에 따라서 무엇을 피해로 이야기할지, 무엇을 성적 실천으로 이야기할지는 각양각색일 것이다. 하지만 섹슈얼리티에 대한 담론이 오직 성폭력의 위협과 연관지어서만 이야기된다면, 여성들은 자신을 구성하는 섹슈얼리티에 대해 고민하는 것, 상상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out> 선본에서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섹슈얼리티를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학내 문화를 바꾸어나갈 것이다. ●

Speak-out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 선본에서는,

1. OT/새터, 대동제 등의 전체 학교에서 진행되는 행사에서 반성폭력 담론이 활성화되고 실천될 수 있도록 반성폭력 교양을 진행하고, 성평등 자치규약 자료집을 발간할 것이다.
2. 반성폭력 주간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비가시화되어온 성폭력 피해를 드러내고, 피해/생존자들의 언어로 성폭력을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다.
3. 여성들이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상상하고 말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진행할 것이다.

감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 올리다



젠더규범에 갇힌 “몸”

학교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몸은 거의가 성별이분법적인 각본에 맞추어진 몸이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떨어져있지 않은 학내에서 부대낌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여학생은 좀 더 ‘여성스런’ 몸을, 남학생은 좀 더 ‘남자다운’ 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많은 여학생들이 매일같이 “오늘은 더 뚱뚱해보이지 않는지”를 고민하는 이유는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그녀가 ‘날씬한’ 몸을 가졌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많은 여학생들이 과반, 반방에서 편한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이유는 언제나 ‘조신한’ 자세를 유지하지 않으면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발표를 할 때나 교수님과 대화를 할 때도, ‘남자같이’ 결절한 목소리보다는 ‘여성스럽게’ 맑고 경쾌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로 여겨진다. 자신이 하는 일이 사소한 것으로 치부된 상황에서도 여성은 분노하거나 히스테리를 부리기보다는 애교 섞인 말투로 의견을 이야기해야 한다. 이처럼 아름다운 몸, 적절한 자세와 행동, 말하기의 방식까지 모두가 젠더규범, 즉 여성성/남성성이라는 젠더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규범들에 의해 세밀하게 재단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는 가부장적인 시선으로 몸이 평가되는 공간이며, 그러한 몸에 대한 평가가 공동체 생활이나 수업 시간과 같은 사회적 관계로 이어지는 공간이기도 하다.

하지만 젠더규범은 우리의 몸에 너무나 밀접하게 달라붙어 있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자신의 몸이 젠더규범에 갇혀있다고 인지하지 못한다. 하지만 ‘여성스럽지/남자답지 못한’ 몸을 연출하거나 비이성적이라고 여겨지는 언동을

행했을 때, 즉 자신의 몸이 젠더규범에서 이탈한 순간 우리는 극심한 부대낌을 느끼게 된다. 내 몸에 둘러붙은 젠더 규범의 강력함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이다.

이러한 부대낌 속에서 젠더규범과 합치하는 몸으로 바뀌기 위해 수행하는 무수한 과정들은 많은 경우 자신을 부정하는 과정의 연속이다. 예를 들어 여성인 내가 '날씬한' 몸을 연출하지 않았다고 하자. 나는 일상적으로 '살빠졌네 /살찐네'와 같은 말을 인사로 들을 것이고, 혼자 있을 때조차 끊임없이 거울과 쇼윈도에 몸을 비춰보며 허벅지가 굵어보이지 않는지, 뺨살이 부각되지는 않는지를 검열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날씬한 여성의 몸'에 대한 이미지에 갇혀 나는 스스로를 타자화하고 객관화하여 평가할 수 있는 사물로 만들뿐만 아니라, 내 몸이 그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과 불화하게 된다. 또한 살을 빼기 위한 음식과 '날씬'해 보이는 패션만을 취하는 과정에서 결국 내 몸이 지금 무얼 먹고 싶은지, 어떤 옷이 나에게 가장 편한지와 같은 내 몸의 욕망이나 메시지를 들을 수 없게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나는 젠더규범 바깥으로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몸의 가능성들을 잘라내게 된다.



타인과 맺어갈 관계의 가능성 역시 잘라내어지긴 마찬가지이다. 젠더 각본을 재생산하는 많은 관계들은 여성성-남성성을 충실히 재현하는 개개인의 몸을 통해서 이뤄지고 유지된다. 예를 들어 한 여성운전사와 남성운전사의 차가 서로 부딪혔다고 해 보자. 이 때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은 남성이 "이 여편네가 집에서 술뚜껑 운전이나 할 것이지, 왜 여기 와서 행패야"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과

그 앞에서 약간은 열 받은 표정으로 여성이 "아니, 진정하십시오. 지금 댁께서 먼저 차로를 넘어오신 거잖아요"라고 따지는 것이다. 왜 우리에게 남성이 공격의사를 정면으로 나타내는 장면이, 여성은 화가 났음에도 높임말로 조곤조곤 대응하는 장면이 익숙한 것일까? 많은 남성의 몸은 타인과 시비가 붙으면 일단 큰 소리를 내는 목소리나 상대보다 강해보이는 태도를 연출하는 것에 익숙하게 길러져왔다. 반면 많은 여성의 몸은 욱박지르거나 표정을 일그러트리는 것을 멀리하도록, 타인과 싸울 때에도 '이 사람이 다치진 않을까'를 걱정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길러져왔다. 게다가 위의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처럼 화를 내기 힘든 까닭 역시, 젠더규범과 연결되어 있다. 여성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낼라치면 돌아오는 '여자는 원래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반응들, 여성을 비이성적이고 열등한 존재로 환원시키는 시선 속에서 여성은 언제나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상황을 객관화하여 발언할 때만 언설의 정당성을 조금이나마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화를 누르고 다른 이에게 맞춰주는 데 익숙한 여성이 자신의 뜻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그러한 뜻에 맞춰 다른 이를 끌고 가는 데 익숙한 남성과 만났을 때, 각자에게 익숙한 몸으로 소통하다보면 서로의 관계를 되짚어볼 틈도 없이 결국 수동적인 여성-적극적인 남성이라는 성역할 구분을 재생산하게 되고 만다. 이렇듯 젠더규범에 갇힌 몸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 역시 가부장적인 성역할구분에 갇히기 쉬워진다. 몸이 익숙한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의 의사소통을 상상하고 실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Rie Nakajima

이처럼 몸은 단순히 생물학적이고 절대적으로 고정된 공간이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으로 구성된 공간이다. 아름다운 몸의 이미지나 적당한 몸의 사용방식은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뤄지는 훈육의 과정을 통해서만 개개인에

게 체화될 수 있다. 여성/남성으로 보이기 위해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해야 하는지,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와 같은 수많은 기준들을 학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여자다운 몸/남자다운 몸을 스스로 재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몸의 정치에 주목한다는 것은 어떠한 규범이나 권력관계에 의해 우리가 특정한 몸을 요구받게 되었는지를 밝혀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몸은 단순히 해부학적이거나 생물학적인 부분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맺음을 위한 몸 각본 — 몸에 부여된 이미지나 몸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이 몸을 둘러싼 사회적 각본의 의미까지 포함한다. 즉, 어떤 사람의 신체를 여성/남성의 몸으로 인지하게 하는 기제들, 그 속에서 여성성/남성성이라는 가치와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기준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언어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못하는 의사소통의 양식들, 합리성의 요구 아래 숨겨야만 했던 감정과 욕망들을 포함하는 개념인 것이다. 결국 몸의 정치는 가장 개인적이고 사소하다고 여겨져 왔던 개개인의 몸에 주목하면서, 특정한 규범과 권력관계를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구체적인 일상을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몸” 바꾸기로 들추어낼 가능성

이처럼 우리는 몸을 통해 일상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많은 경우 우리의 몸은 젠더규범에 갇혀있다. 이러한 사실은 일상에 존재하는 젠더규범의 공고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한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한다. 우리가 몸을 통해 가부장적 성별이분법을 재생산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젠더규범에 갇힌 나의 몸을 바꿈으로써 나의 몸과 이어져있는 가부장적 각본 또한 바꾸어낼 수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몸 바꾸기란 단지 특정한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몸의 기준에 어떠한 젠더규범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과정과 구체적인 삶의 맥락에서 개인이 경험한 몸을 이야기하는 과정, 그리고 다른 이와 몸의 언어로 소통해나가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까지를 뜻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각자의 몸에 가부장적 성별이분법이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를 탐구하고, 이후에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나갈 것인지를 만들어내는 단초를 짚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여성폭력운동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과 같은 기획을 통해서 몸 바꾸기의 가능성을 점칠 수 있다. ‘자기방어훈련’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각인되어진 여성성을 성찰하고 다른 움직임의 주체가 되어보는 훈련이다. 여성은 항상 남성에게 보호받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기 위해서 근육이 없는 몸으로 자라나도록 교육받아왔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몸 각본은 정말로 여성이란 존재가 ‘본질적으로’ 보

호반이야만 하는 몸으로 태어나서라기보다, 오히려 그러한 각본을 통해 여성을 보호받는 몸으로, 남성을 보호해주는 몸으로 위치시키기 위해 강요되어왔다. 그를 통해 여성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남성은 여성의 안전을 위탁받는 존재가 됨으로써 보호받는 여성-보호해주는 남성 사이의 권력관계가 재생산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각본을 깨기 위해 자기방어훈련에서는 몸과 마음을 훈련해나간다. 조심스럽게만 놀려왔던 팔과 다리를 꺾어 보기도 하고, 땀이 흠뻑 날 때까지 달려보기도 한다. 타인의 공격의사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그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급소를 타격하는 훈련이나 자신의 몸을 지키는 자세를 연습한다. 뱃속에서부터 우렁찬 기합을 내질러보기도 하고, 마른 몸이 아닌 우락부락한 몸을 뽐내기도 한다. 이러한 훈련을 통해 우리는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몸의 각본을 간파하고, 이에 대항해서 다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전략을 세워나갈 수 있다.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out>은

이러한 몸 바꾸기의 가능성을 믿으며, 여성주의적으로 몸 바꾸기를 고민하고 실천함으로써 각자의 구체적인 경험과 관계들로부터 시작하는 변화를 이야기해나가려 한다. 이를 위해 몸 프로젝트 팀을 꾸려서 기존에 나의 몸이 어떤 규범에 익숙해져 있는가를 살피고 각본에 갇힌 몸을 바꾸어나가는 일상적인 시도를 함께 해나가려 한다. 이러한 과정은 젠더규범에서 벗어나는 몸을 함께 상상하고 긍정하는 과정, 그래서 꼭꼭 감추어야 했던 내 안의 감정이나 내 몸의 신호들을 드러내는 과정, 그를 통해 상대를 확실적인 시선으로 대상화하지 않고 바라봄으로써 함께 몸의 언어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자기방어훈련 워크샵과 같은 몸 바꾸기 워크샵을 개최하여, 관심을 가진 많은 학생들과 함께 몸 바꾸기를 실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 한다. 이 외에도 젠더규범과 몸의 연결에 주목하고, 변화를 만들어왔던 학외의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하여 몸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나가고자 한다. 이처럼 <Speak-out>은 학내에서 몸 바꾸기를 풀어냄으로써 기존에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몸의 경험과 언어를 드러내고, 젠더 각본에 갇혀있었던 관계들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이다. ●



Rio Nakajima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비이성애정체성은 이 사회에서 가시화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 둘 중 하나여야 하고, 여성이면 남성을, 남성이면 여성을 좋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관계들만 이 사회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연하다는 듯 드러날 수 있으며 정상인 것으로 여겨진다 — 태어날 때 결정되어 버린 생물학적인 성별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동성간의 친밀한 관계는 우정 이상으로 여겨질 수 없다. 동성만 있는 공간은 언제 어디서나 무성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지 않은 경우를 상상하는 것은 매우 반사회적이고 위험한 일인 것처럼 생각된다. 이 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는 비이성애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관계와 삶을 꼭꼭 숨어 버리게 만들어 보이지 않게 하고, 비정상이라는 편견과 낙인으로 덮어버렸다.

그나마 이 사회에서 비이성애정체성이 이야기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편견으로 얽혀서 설명이 되곤 한다. '동성애자라면 어쩌어 떠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의 정체성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판단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동성애자를 모두 똑같은 성격을 가진 한 집단으로 만들고 그 안의 여러 가지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집단에 '문란하다', '비정상적이다' 등의 낙인을 찍고, 그런 방식으로 묘사한다. 또한 육체적 관계가 포함되어야 동성애라고 '인정' 하기도 한다. 동성애를 육체적 관계와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은 동성애를 존재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일탈적인 행동일 뿐이라고 보는 인식 때문이다. 때로는 동성애 관계나 감정은 한 때 지



Rie Nakajima

나가는 바람이라며, 정신 차리면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혹은 아예 깊은 우정일 뿐, 사랑은 아니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동성애는 최대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거나, 동성애자는 문란하고 비정상적이고 매우 특이한 집단의 사람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게다가 동성애를 자기가 판단하여 인정해줄 수 있거나 허락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성애중심주의 사회에서 갖게 된 권력을 가지고 부리는 횡포이다.

이런 상황에서 비이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긍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긍정하게 되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자신의 비이성애정체성을 드러내면 속해있던 집단에서 배척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직접적으로 언어적/물리적 폭력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비이성애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호모포비아적인 발언을 들어도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고 분위기에 맞추어 넘어가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사회는 이렇게 또 비이성애정체성을 비가시화하며 이성애정체성 외에 다른 정체성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못하게 만든다.

비이성애정체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성별이분법과 젠더규범을 강화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남성적인 남성'과 '여성적인 여성'만이 이상적이고 정상적이라고 묘사되고 이것만 추구하도록 용납된다. '여성적'이지 않은 여성은 편견을 듣게 되고, 여성스러워지도록 사회적인 분위기로부터, 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강요받는다. 그리고 '정상적인' 성별규범을 벗어난 사람은 '비정상적인 동성애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성적'이지 않은 남성, 즉 '여성스럽다'고 여겨지는 남성을 게이 아니냐며 수군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비이성애정체성에 대한 억압이 성별규범을 공고히 하는 것과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있는지를 드러내준다. 성별규범에 맞는 '정상적인' 남성과 여성의 만남만을 이 사회는 이상화하고, 용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진리가 아님을 보여주는 상황과 경험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게 하며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비이성애정체성은 이 사회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듯 비가시화되거나, 종종 선정적인 가십거리로 사용이 되곤 한다. 그럴 때는 동성애가 연애의 문제로만 부각되어서 '동성연애'라고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성정체성은 누구와 사귀느냐 하는 연애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 존재의 문제이다. 이 사회는 대부분의 성소수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살도록 강요한다. 그리고 학교와 직장 등에서 혹시나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을까 끊임없이 신경 쓰면서 살도록 만든다. 동성애자는 삶을 계획하는데 있어서 동성결혼은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이성결혼을 언제 할 것이냐고 질문 받고 빨리 결혼을 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룰 것을 독촉 받게 된다. 트랜스젠더에게는 여/남으로 나뉜 화장실에 가는 것도 일상적인 부대낌이 된다. 그러나 이러한 비이성애적인 정체성이나 관계, 삶과 고민은 이야기되지도 드러나지도 않는다. 이는 비이성애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이성애중심주의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강요받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이다. 내가 어떤 스타일의 옷을 입을 것인지, 걸음걸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누구와 살 것인지, 어떤 직장에 다닐 것인지 등을 고민할 때에도 이성애중심주의의 잣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 사회에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삶의 방식 자체가 이성애중심적

로 짜여있기 때문에, 이성애중심성의 권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억압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사회의 이성애중심주의와 호모포비아는 학교 안에서라고 전혀 다르지 않다. 비이성애정체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 비이성애정체성에 대한 직간접적 폭력은 학교 안에서도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새터나 MT에서의 분위기, 과반 공동체 등에서의 놀이문화는 철저히 이성애중심적이다. 남성친구들끼리 너무 가깝게 붙어 친해 보이면 사귀냐고 놀리고, 게이 같다고 이상하다는 듯이 하는 말을 너무나도 쉽게 들을 수 있다.¹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여남이 걸리면 러브샷을 시키고, 여학생이 걸리면 남학생에게 흑기사를 요청하라고 시키면서 분위기를 띄운다. 여남이 조금만 친하면 사귀라고 하고 '예쁜 (이성애) 커플'로 엮어주려고 노력한다. 수업시간에는 교수가 비이성애자를 회화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기도 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것처럼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체 누군가의 삶과 존재를 찬성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렇게 학교 안에, 자기 주위에 비이성애자는 당연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이성애정체성을 억압하며 이성애중심주의는 강화되는 것이다.

22대 총학생회를 준비하는 <speaking-out>은 학내의 이성애중심적인 분위기를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학내의 이성애중심주의를 비판하고 다양한 비이성애정체성을 주체적으로 드러내고 긍정할 수 있는 문화제를 열 것이다. 또한 강의실 내 호모포비아 발언과 같은 학내의 호모포비아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며 이를 활발히 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려한다. 마지막으로, 탈이성애중심주의를 위한 노력은 학교 밖과도 뗄 수 없는 문제이기에 다양한 학내외 단체와 연대하며 힘을 받을 것이다.●

1. 레즈비언은 존재자체가 더욱더 비가시화되어 있어서 게이에 관한 말을 듣는 경우가 많다. 요즘엔 게이는 패션아이콘이라며, 자본주의의 입맛에 맞는 방식으로 좀 더 가시화된 편이다. 반면 여성은 성적인 주체라기보다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겨지다 보니,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사회는 상상하지도 못한다.

갑자기
쿵쿵쿵쿵
왼편에 놓인 심장이
저릿저릿
중심에 놓인 뇌가

너는 살고 싶지 않니?

아아니
나는 살고 싶어 이러는거야

갑자기
심장이 쿵쿵쿵쿵 뇌가 저릿저릿

너는 살고 싶지 않니?

아니
나는 살고 싶어 이러는거야

갑자기 쿵쿵쿵쿵 저릿저릿

너는 살고 싶지 않니?

아니
살고 싶어.

쿵쿵쿵쿵 저릿저릿
너는 살고 싶지 않니?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
. .
.



문득 어느날
내가 저어기 멀리 앉아있었다.
저어기 멀리-

이상스러워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게맞아 원래그래-
그 수많은 경계에 나는 웃으며
네, 그렇지요
미소지으며-

여기저기 경계에 쏠려 찢어져 들어 가는 걸
절단하며 피를 철철 흘리며.

불쌍하다 가련하다 안타깝다
저기 갇혀있는 내가 미련하다 생각했다
앞에 있는 사람을 껴안을 수 없는건-

머리 속에 차단기가 위잉위잉 더 이상 생각마라
그래 그래 생각하지 않을거야. 했다.
여기 멀리에서-
나는 가만히 쳐다볼거야.



www.krechau.com

애써 웃기보단 말하기로 했다.
절단하기보단 치유하기로 했다.
불쌍히 여기기보단 풀어주기 했다.
멀리서 보기보단 껴안아주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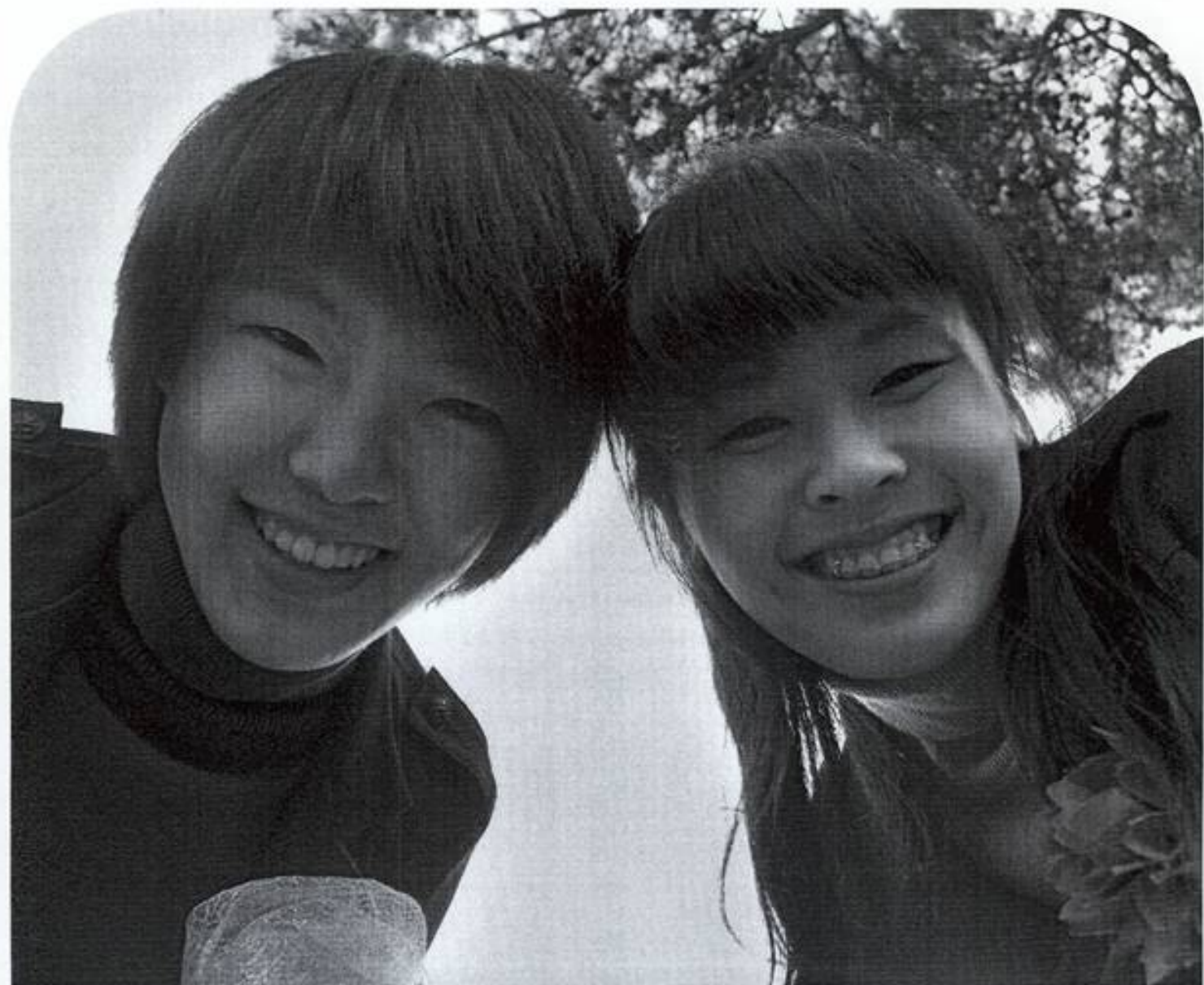
경계따윈 흡어버리기로 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 끼워맞추는 조각블럭처럼.

경계를 흡어버리자 이야기가 차올랐다.
껴안은 나는 이전과는 달라졌다.
나의 심장과 뇌가
껴안은 사람의 심장과 뇌가
이야기를 베풀어오르도록 쏟아냈다.

쏟아진 이야기 조각들은
반짝 반짝 빛을 내어 어둠을 걷어내었다.
더는 무섭지 않았다. 위축되지 않았다.

힘차게 걸어나가리라
경계를 흡은 곳에서
너와 내가 안은 곳에서.





〈speak-out〉이

바라보는 세상



< speak-out > 이 바라보는 세상 ①

갯벌은 갯벌이다. 송도갯벌은 살아있다



학교 당국이 송도국제화복합단지(이하 송도캠퍼스)를 조성하기로 결정한 지 3년이 지났다. 올해 봄, 공사 착공을 시작하고는 연세대학교 총장은 학내 학생 중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은 채 인천 시장과의 논의만을 거쳐 학생 중 일부를 강제이전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생들은 학교가 아닌 신문 기사를 통해서 학생 이전 계획을 접하게 되었다. 2010년 일부 단과대가 부분 개교하고, 2011년 이후 연세대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은 1학기 이상 송도캠퍼스에서 생활해야 한다고 한다. 학교 측의 입장은 완강하고 필사적이다.

인천 시장과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학생들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신촌 캠퍼스 학생 중 일정 수 이상을 이전시키는 것이 송도 갯벌을 매립한 땅에 연세대학교가 입주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었다는 것만은 알 수 있다.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학생들을 강제이전시키는 과정으로 미루어볼 때, 학생들의 생활 공간과 교육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 분명한 송도 캠퍼스. 그런데 여기에 쏙 빠진 이야기가 있다. 송도 캠퍼스가 입주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다. 사실은 '땅'과 '바다'의 경계에 있는 갯벌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던, 그곳과 함께 살고 있던 생명들과 그 삶들에 대한 이야기다.

연세대학교가 들어서는 '땅'은 인천송도갯벌을 매립해 만든 땅이다. 매립되기 이전에 그곳은 끝도 없을 갯벌 같이 넓고 고요한 갯벌이었다. 갯지렁이, 조개, 칠게, 고동 등 무수히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숨을 쉬며 살아가던 곳이었고, 수천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머무르던 곳이었다.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오며 무수히 많은 생명들이 그 갯벌과 함께 태어나고 살다 죽었고, 그 지역의 사람들도 그 갯벌과 함께 살아왔다.

그런 갯벌은 이제 거의 남아있지 않다. 몇 십년 간 무분별한 매립을 한 결과, 현재 인천 해안선은 99%가 인공해안선이다. 개발자들은 인천에 넓게 퍼져있던 갯벌을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하고, 그 '쓸모 없는 땅'을 쓸모 있는 땅으로 만들기 위해 무작위로 매립을 해왔다. 결국 인천에 마지막으로 남은 내륙 갯벌은 송도 갯벌 중 일부분일 뿐이고, 그 갯벌조차 매립을 앞두고 있다. 개발자들은 송도갯벌을 1공구~11공구로 나눠서 1공구~10공구의 모든 갯벌의 매립을 승인했고, 대부분 매립이 진행되었다. 연세대학교 부지는 이 중 5,7공구 매립지에 있다. 아직 매립승인이 나지 않은 11공구라고 이름붙여진 갯벌도 이미 매립이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 그 마지막 갯벌이 없어지면, 인천 내륙에는 갯벌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사실,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의 마

스터플랜엔 이미 매립되지도 않은 그 11공구의 갯벌에 건물
이 들어서 있다.

아직 매립되지 않은 '11공구'라고 이름붙여진 그 갯벌에는
여전히 십수 명의 어민들이 맨손어업-갯벌을 하고 있다. 그
들 중 대부분은 여성 어민이다. 이는 가부장제 산업사회가
여성들의 노동 영역과 생활 영역을 혹독하게 제한한 결과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기술과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이는
남성이었고, 여성은 끊임없이 주변으로 밀려났다. 기술에 가
까운 노동일수록 높은 가치가 매겨졌고, 반대로 자연과 가까
운 노동일수록 낮은 가치가 매겨졌으며, 그 속에서 자연과
가까운 노동들은 여성들의 몫으로 여겨져 왔다. 이는 가부장
제 산업사회에서 여성이 결여된 존재로서 타자화 되어왔으
며, 자연 역시 언제나 개발가능하고 착취가능한 대상으로서
타자화 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성-자연에 대한 타자화
에 따른 성별분업은 갯벌 근처의 마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
다. 그곳에서 남성들의 노동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거
나 양식을 하는 것이었다면, 여성들의 노동은 맨손으로 조개
를 캐는 갯벌이었다.

그렇게 송도 갯벌에서 갯벌을 하는 여성어민들은 자신의

삶을 생태적 순환주기인 '물 때'에 맞춰 구성한다. '물 때'가
오면 갯벌에 나가 조개를 캐다가, '물 때'가 끝날 때 즈음엔
자산들이 캔 조개를 짚어지고 물으로 돌아온다. 여성 어민들
의 갯벌은 바다와 자신을 맞춰가며 바다에 순응하는 과정이
다. 갯벌의 생태에 대해 알아가며, 또 그 갯벌과 함께 살아가
는 것을 배우고 행하는 과정인 것이다. 그녀들은 절대 어린
조개는 잡지 않는다. 그 조개들은 아직 더 커야 하고, 또 어
린 조개들을 잡으면 씨가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녀들은 다
큰 조개만 잡는다. 그녀들은 바다의 생태주기에 자신들을 맞
춰, 갯벌과 갯벌에 사는 생명들과 함께 사는 법을 익히며 행
한다. 여성어민들이 갯벌과 맺는 관계는 갯벌을 받아들이고
갯벌과 서로를 살리는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것이다. 그녀들
에게 있어서 갯벌은 단순히 '자원'이나 개발가능한 대상이
아니다. 갯벌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생활공간이자, 끊임없이
조개가 나오는 생명의 땅이며, 함께 살아가며 관계를 맺어가
는 존재이다.

반면 개발자들이 바라보는 갯벌은 철저히 정복/개발가능
한 대상이며, 타자로서의 자연이다. 자연을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기준에서 필요





에 따라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도구화하는 것이다. 갯벌의 가치와 갯벌을 둘러싼 관계들과 삶들은 자본주의의 이익에 쉽게 포섭되지 않는다. 갯벌에서 살고 있는 갯벌생물들과 철새들의 삶, 그리고 여성어민들의 갯노동은 개발자들에게 어떠한 이익도 주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건물을 지어 올려 돈을 끌어모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한 그들로서 매립하여 정복가능한 '땅'으로 만드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매립'에는 개발자들이 자연-갯벌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단적으로 드러난다. 갯벌을 '정복 가능한, 개발 가능한 대상'으로 바라보는 철저한 타자화와 일방적인 파괴. 이것이 개발자들이 갯벌과 관계맺는 방식이다.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인지에 대한 일말의 고민조차 없으며, 그 갯벌에 어떠한 생명들이 살고 있는지, 그 갯벌과 함께 지금껏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모든 이야기 또한 안중에도 없다.

매립은 단순히 없던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갯벌을 둘러싼 모든 생명과 관계들을 송두리째 삭제하는 것이다. 그 곳에 살고 있던 모든 생명을 학살하는 것이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곳에서 살고 있던 지역 주민-여성 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것이다. 여성 어민들의 갯일은 무가치하거나 열등한 노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그녀들이 생활하는 공간인 갯벌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철저히 가부장제 개발산업 사회의 시각이다.

이러한 가부장제 개발주의 아래, 송도갯벌은 흔적만 남긴 채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전에는 백 명이 넘는 여성들

이 송도 갯벌에서 갯일을 했지만, 매립이 진행되면서 지금은 1~20명의 어민들만 남아있다. 다른 어민들은 매립에 의해 갯벌이 없어지면서 생활이 불가능해졌고, 그 결과 대부분 도시 빈민층으로 흘러들어갔다고 한다. 매립이 진행되면서 송도갯벌을 찾던 철새들의 수는 현격히 줄어들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갯벌에는 모든 키조개가 죽어 시체만 남아있고, 사람 얼굴만한 백합을 잡았다는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 추억거리가 되었다.

에코페미니즘은 그러한 가부장제 산업개발주의에 반대한다. 그것이 누구를, 무엇을

타자화하고 억압, 착취하고 있는지를 고민한다. 즉, 애초에 매립이란 자연을 타자화하는 시각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며,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던 여성어민들의 노동과 삶을 평가절하 하고 없는 것으로 만드는 시각이 전제되어 있어야 가능한 것임을 드러낸다. 에코페미니즘은 그러한 타자화에 반대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관계맺을 것인가를 고민한다. 여성어민들이 갯벌에서 노동하고 생활하며 지금껏 상생의 관계를 맺어왔던 것에 주목하며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고민을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무엇인가를 착취하지 않는 관계를, 함께 살아가는 관계맺기를 고민하는 것이다.

내년에 부분 개교가 예정된 연세대학교 송도캠퍼스는 송도갯벌을 매립한 땅 위에서 지금도 엄청난 속도로 지어지고 있다. 미리 매립한 땅은 물론이고, 아직 매립이 최종확정되지 않은 갯벌에도 캠퍼스가 지어질 예정이라고 학교 스스로 공표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학생인 나는 이러한 송도캠퍼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갯벌에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죽이고, 갯벌과 함께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없애고, 갯벌이라는 자연 자체를 말살시키는 데 연세대학교가 훌륭한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나는 이 학교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배울 것인가. 적어도 그 땅이 송도갯벌을 매립하여 만들었으며, 매립이라는 행위는 갯벌과 갯벌에 살던 생명들과 갯벌과 함께 살고 있던 여성 어민들에 대한 명백한 폭력이라는 것과, 그것이 과연 인간이 자연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관계맺음의 방식인지를 함께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

성폭력 사건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지난 9월, 우리 사회는 새로운 사건으로 인해 들썩였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전자 발찌 제도 도입 1주년을 주제로 한 시사프로그램이었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이다.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프로그램에서는 사건 앞에 피해/생존자의 이름을 붙여 언급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이름이 앞에 붙는 범죄는 성폭력이 유일하다. 이것은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 맞춰지고, 그로 인해 가해자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멀어지는 데에 일조해왔다. 이런 구도의 재생산을 막기 위해 가해자의 이름을 사건 앞에 붙이지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그래서 언론은 그 뒤로 사건의 이름을 '조두순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다. 같은 취지로 이 글에서도 '조두순 사건'이라고 언급할 것이다.

이 사건에 사람들은 매우 분노하였다. 이 분노는 인터넷 상의 청원이 쇄도하고, 50만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 내고 피해/생존자를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가 지켜주어야 할 어린 아이를 내버려 둔 우리의 잘못이 크기 때문'이라는 대목이 자주 등장한다. 일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이는 이 주장에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대목이 눈에



뜬다. 사람들의 '어린 아이를 지켜주어야 한다'는 주장 안에는 어린아이는 성에 대해 무지하고 순수하며, 그래서 지켜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이 생각에 따르면, 성폭력 사건의 피해/생존자는 '지켜주어야 하는 피해/생존자'와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피해/생존자'라는 두 개의 이미지로 나뉘는 판단이 가능해진다. 또한 이런 주장에 따르면, 피해/생존자가 저항할 힘이

없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피해/생존자를 지켜주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된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는 '피해/생존자들의 몸'에 어떤 권력관계가 반영 되어 있는지, 이런 권력관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 지에 대한 성찰은 사라지고, 그저 여성을 보호할 수 있는 강한 남성의 몸과 남성에게 보호받아야 하는 수동적이고 약한 여성의 몸이라는 이분법적 권력관계만이 재생산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보호자 남성과 피보호자 여성이라는 구도는 결국 남성이 여성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존재이며, 여성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이런 식의 힘센 자가 약한 자를 지키면 된다는 논리는 성폭력이 기반을 두는 성별권력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외려 이를 지속시

안적 공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요구하는 대안적 공간이 바로 여학생 휴게실(이하 여휴)이다. 여휴는 '여성 전용 쉬는 곳'이 아니다. 남성적 대학문화에 의해 반방과 과방이라는 대표적인 학생 공간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여학생들이 머무르는 대안적 학생 공간이다.

가부장적인 학내에서 배제된 여성이 머물 수 있는 대안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여휴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부실한 시설이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은 여휴가 학내 여학생의 공간으로 제대로 구실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여휴는 방치되고 있으며 여휴에서 일어나는 여학생의 행위는 수면 위주의 단조로운 행동 패턴에 머무르고 있다. 많은 여학생이 자신들의 다양한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학내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도 여휴에서 일어나는 행동 패턴이 단조로운 까닭은 여휴를 설계할 때 공간 사용에 대한 고찰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휴를 설계한 사람은 여학생이 휴게실에서 무엇을 할 지 잠시 생각해보니 아마도 잠자고 앉아서 쉬고, 수다 떨고 가끔 화장도 고칠 것이라고 쉽게 떠올렸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단순휴식인데 열과 성을 쏟아 공간을 구성할 필요 없다. 대충 만들자...' 그렇다. 여휴는 대충 만들어졌다.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사소하다고 간주한 채 건성건성 만들어졌다. 여학생을 위해 만든 공간인 여휴에서 여학생의 다양한 경험을 풀어내지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는 외국인 학생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아주 잘 만들어진 글로벌라운지의 경우와 대조적이다. 글로벌라운지에서 일어나는 휴식은 소통, 교류, 재충전 등과 같은 긍정적인 언어로 표현된다. 여휴의 휴식과 글로벌라운지의 휴식은 근본적으로 같은 행위이지만, 여성의 휴식은 수다, 집담 같은 언어로 표현되어 훨씬 낮은 가치로 전락한다.



여휴는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편안히
쉬 수 없는
여학생의
교육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여성의 행위를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은 여휴를 없애고 '모든' 학생을 위한 편의공간을 만들자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여휴는 여학생의 생리적 현상에 대한 배려로 만들어졌으나 그 공간의 활용도는 단순 휴식에 불과하니 여휴를 없애고 흡연실, 멀티미디어실 등의 모든 학생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거나, '남녀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휴게실을 만들어 더 넓고 좋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 여성의 몸을 열등하게 여기고 여성의 경험을 평가절하하는 사회구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이러한 사고는 여휴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여휴를 만든 문제의식을 삭제한다. 그들은 여휴를 없애고 여남 구분 없는 더 넓고 좋은 시설로 만들면 여학생도 지금보다 더 개선된 환경에서 쉴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여남이 섞여있는 공간 안에 가부장적인 권력관계와 여성의 행동을 강제하는 시선이 존재하는 한 여학생은 그 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한다. 이것은 더 많은 사용자

집단을 포용할 수 있는 효율성을 표방하지만 결국에는 남성 위주의 공간을 재창출한다.

여휴는 가부장적 시선 속에서 편안히 쉴 수 없는 대학 내 여학생 교육권에 대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다. 여휴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누울라치면 할끔할끔 쳐다보는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효율성'을 이유로 여휴를 없애자는 주장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여휴가 안고 있는 문제의식을 간과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여성의 몸을 평가절하하는 사고관이 자리 잡고 있다. 여휴는 남성위주의 공간 재창출로 귀결될 효율성'을 위해 폐지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대학사회에 꼭 필요한 학생 자치 공간이다. 그러므로 여휴는 낙후된 시설이 개선되고 여학생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나아가야 한다. ●

병역 제도에 X표 던지기

병역은 오랫동안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다. 애초부터 법에 의해 군대에 가지 않는 아들에게는 경험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군대에 대해 감히 논할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고, '감히' 병역을 거부한 자들은 그야말로 역적 대우를 받았다. 군대에 관련한 모든 논란의 중심에서 말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들뿐이다. 군가산점제가 이슈가 됐든, 대체복무제가 이슈가 됐든, 아니면 최근 부각되고 있는 여성의 병역 의무가 이슈가 됐든, 병역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원하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들은 어쨌든 '병역을 이행한 비장애인 남성'인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논쟁을 피하거나, 기껏해야 방어적인 자세로 이들의 뱃살치는 공격을 받아내야 한다.

이 와중에 '합법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으로서, 그리고 여성주의적인 관점에서 병역 거부에 대해 말을 하는 것은 제법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여성도 '국민으로서' 합당한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판국에 시대에 역행하는 주장으로 읽힐 수도 있고, 애초에 병역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여성이 병역 거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병역 거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기적인 여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의무를 회피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양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병역 거부를 소극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군대라는 제도를 통해 내재화되는 '정상성'의 범주와 가부장적 권력 관계, 그리고 폭력적인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로서 의미를 갖는다.



www.pauliatroxier.com

군대는 입대부터 전역의 전 과정에서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정상성'의 척도로 규정하여 이러한 '정상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일방적으로 배제시킨다.

이는 무엇보다 군대에 들어가기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신체검사에서 행해지는 일들은 한 인간이 국가가 규정하는 정상성에 포섭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다. 그는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성'인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으며, '심신의 장애'를 가지지 않아야 한다. 이 기준은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극히 비장애 이성애자 남성중심적으로 구성된 자의적 기준이다. 누구를 남성으로 규정할 것인가, 무엇을 장애라고 규정할 것인가, 어느 정도를 군대에 복무할 수 없는 장애의 정도로 규정할 것인가, 어떤 정신적 상태를 정상적이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태로 규정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은 특정 권력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어도 페니스를 가지고 있지 않은 FTM²이라면, 정신과 병원에서

킨다. 사람들의 분노에는 이런 권력관계를 담고 있는 각본에 대한 문제제기가 보이지 않으며, '힘세고 정의로운 이들'이 '힘없는 이들'을 지켜주겠다는 주장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성별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의 실례로 데이트 성폭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데이트 성폭력은 실제 연애 관계 혹은 그와 유사한 감정에 기초한 관계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피해/생존자와 가해자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데이트 성폭력은 비가시화 된다. 여기에는 성폭력을 성별권력 관계의 문제로 보지 않는 시선과 사적인 관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폭력에서 벗어났다는 인식이 들어 있다.

한편 성매매 여성들은, 말 그대로 '성'을 '매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정조'가 없으므로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피해/생존자라고 여겨진다. 그리고 이렇게 '지켜주지 않아도 되는' 피해/생존자의 경험은 애초부터 성폭력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이다.

인터넷 청원과 시사 프로그램을 들여다보면, 사람들은 가해자가 얼마나 잔혹하게 가해행위를 저질렀는지를 낱말이 드러내어 사건의 잔혹성을 부각시킨다. 물론 사건의 '잔혹성'은 더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반향을 끌어내기에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런 식의 서술은 가해자의 행위는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단순히 자극적이고 감정적으로 흥분케 할 만한 내용과 가해자의 시선에 의거한 서술들을 나열하기만 할 뿐, 이런 사건들을 일어나도록 한 성별 권력관계나 피해/생존자의 치유와 이후의 삶에 대한 성찰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피해/생존자를 고려하지 않는 서술은 명백히 피해/생존자에 대한 2차 가해이다. 왜냐하면,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의 행위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피해/생존자의 의도

와는 상관없이 특정한-여기서는 선정적인-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하여 피해/생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떠올리도록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해 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지다 보면, 사건의 '잔혹성'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식의 사건 설명은 성폭력 사건은 강제적인 성기삽입 등의 행위를 포함하는 잔혹한 범죄라는 통념을 불러온다. 이런 통념으로 인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잔혹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생존자들의 경험은 비가시화된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사소하게' 벌어지는 성폭력에 대해 점점 무뎌지게 하여 문제제기조차도 하기 힘들도록 만든다.

이렇게 조두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현재 사람들의 성폭력을 바라보는 관점을 여과 없이 보여준다. 사람들의 분노는 비슷한 사건의 반복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다시금 살펴보면 그들의 분노는 피해/생존자의 온전한 치유를 위한 것이 아닌, 단지 자신들이 '지켜주어야 했을' 어린 여자 아이의 무성적인 순수함이 침해되었음에 기초한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잔혹함을 부각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서술방식은 전형적인 가해자와 생존/피해자의 이분법적 권력구도로는 설명되기 힘든 성폭력이 비가시화되는 결과도 불러왔다. 또한 사건을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로 언급함

으로써 피해/생존자의 경험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는 일과 피해자가 지지 받고 공감 받는 일의 중요성은 드러나지 못했다. 피해-생존자 개개인의 관점이나 맥락에 따른 욕구는 전혀 드러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한 일련의 흐름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과 우리가 성폭력 사건을 그간 어떻게 바라보아왔는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여학생 휴게실 고찰하기



공간은 그 장소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의해 정의된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따라 텅 빈 공간은 교실이 되고, 클럽이 되고, 회의장이 된다. 텅 빈 공간은 중립적이다. 미지수의 공간이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은 중립적일 수 없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행위가 공간의 중심 행위가 되면, 그 이외의 행위가 일어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남자들의 공간인 운동장에서 여성이 농구를 하면 곤란하다. 만약 후자의 행위를 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식적이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고, 하던 일을 그만 두거나 그 공간에서 나가야 한다. 이렇게 공간은 배타성을 띄고 권력관계를 만들어낸다.

반방과 과방 역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며 배타성을 띄고 있다. 이때의 배타성은 여러 가지 일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여성에 대한 배타성은 반방과 과방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남성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로 친해지기 위해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과격한 응원전을 펼치고, 당구를 치고, 삼삼오오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우리를 대학문화의 남성적인 면이다. 이와 같은 남성연대를 강화하는 친목도모는 남성적인 공동체, 남학생이

주가 되는 공동체를 재생산한다. 남성의 행위는 권력관계에서 상위를 차지하게 되고 반대급부로 상정된 여성의 행위는 하위에 놓이게 된다. 남성적 시선은 끊임없이 여성에게 쫓힌다. 남성은 여성이 자신들의 기호에 알맞은 행위를 하도록 직접 강요하지는 않지만, 따가운 시선으로 여성의 행위를 강제한다. 뚱뚱하다, 날씬하다, 몸매가 좋다, 예쁘다, 못났다, 화장이 청순하다, 화장이 진하다, 옷을 잘 입는다, 치마가 짧다, 여자가 담배를 피운다, 조신하지 못하다, 드세다, 까칠하다 등등. 결국 반방 과방 안의 여학생은 날씬하고 몸매 좋고 예쁘고 옷을 잘 입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조신하고 고분고분한 여성이 되도록 요구하는 시선을 끊임없이 받게 된다. 그리고 그 시선에 부합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 나를 검열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이것이 여학생들이 몸 편히 마음 편히 반방 과방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이다.

특정 사용자집단에게는 관대하고 그 외의 사용자에게 배타적으로 변하여 어떤 공간이 권력관계를 형성했다면 공간에서 일어나는 행위의 스펙트럼을 넓혀야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다른 행동을 하는 사용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사용자집단의 행동과 사고관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반방과 과방이 지금처럼 행위의 스펙트럼을 남학생 중심에 한정된 채 더 넓은 학생집단을 포함하지 못한다면, 대



www.paulatroder.com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라는 '진단'을 받으면, 혹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설령 본인이 군대에 갈 의사가 있더라도 갈 수 없다. 국가 권력이 '이들은 '정상적인 남성'의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따라서 정상적인 남성만이 할 수 있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때 '비정상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자의와는 상관없이 군대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군대에 갈 만큼 '정상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직, 이직, 승진과 같은 여러 문제에서 사회적인 차별을 받는다. 그렇기에 신체검사를 통해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을 걸러내고 이들을 군대에 갈 수 있는 '정상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곧 비장애인 이성애자 남성이 아니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아도 된다는 간접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다.

1. 이는 오랫동안 여성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한 자만이 '진정한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얻는다는 점, 국가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고 남성이 보호해주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함으로써 여성은 자의와 상관없이 군사 제도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것을 여성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출생 시 해부학적 여성 육체에 따라 부여받은 성과는 달리 스스로를 남성으로 정체화하고 있는 성전환남성 (출처: 다류멘터리 3xFTM 블로그)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군대에 갈 수 있을만한 '정상성'을 확인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니다. 군대는 그 자체가 가부장적 권력 질서가 극대화된 공간이며, 군대에 들어가면 가부장적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사회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철저한 통과 의례를 거쳐야 한다. 국가라는 가장 강력한 가부장을 필두로 촘촘히 짜여 있는 위계질서 속에서 군대 내의 모든 관계는 계급을 기반으로 한 권력관계로 재편된다. 그리고 모든 의사소통은 상명하달 방식을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군대를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기계적 조직으로 만들어 상부가 하부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함이다. 이 위계는 너무도 절대적이어서, 군대 내에서 권력관계를 무시하거나 이탈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전체 질서에 대한 반란으로 여겨진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명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윗사람의 명에 절대복종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배운다. 윗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아랫사람을 보호하는 한편 그를 효과적으로 억압할 수 있어야 자신의 권위를 박탈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배운다. 이는 마치 가부장이 자신의 권력을 내세워 가족 성원을 외부로부터 보호하고 한편으로는 내부적으로 이들을 자신의 뜻대로 억압하는 것과 유사하다. 만약 군대에 속한 개인이 이러한 군대의 가부장적 권력관계에 철저히 순응하고 이를 내재화하지 않으면, 징

게· 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조직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으로서 비정상상의 낙인이 찍히게 된다.

한편 군대는 폭력적인 남성중심 문화를 훈육하는 장이기도 하다. 흔히 육체적인 강인함, 적극성은 남성성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것이 왜곡된 방식으로 극대화되어서 보다 강하게, 보다 적극적으로 아랫사람을 억누르는 것이 자신의 남성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방식이 된다. 구타와 욕설 또한 군대 외부에서는 폭력 행위가 될 수 있지만, 군대 내에서는 '자신의 강함을 과시하고, 아랫사람의 '군기를 잡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정당화된다. 이를테면 군대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폭력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영창에 수감된다. 이는 폭력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부분적으로 돌림으로써 가해자에게 폭력의 정당성을 일정 정도 부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폭력 그 자체에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될 수 있는 폭력과 그렇지 않은 폭력을 나누는 것은 '일정 기준'을 넘어서지 않는 폭력은 언제든 정당화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은연중에 유포한다. 군대의 존재 자체가 이미 다른 국가의 위협에 맞서 소극적 혹은 적극적으로 폭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임을 인식한다면, 폭력과 군대는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군대 내에서는 여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 성적대상화가 노골적으로 행해지고, 그것이 남성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서 인식된다.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것은 온갖 부정적인 가치를 여성에게 투사함으로써, 그 반대급부로 남성인 자신을 여성에 비해 우월한 존재로 위치시켜 스스로를 긍정하기 위함이다. 또한 흔히 여성성으로 분류되는 특성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의 남성성을 증명하고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한편 여성 혐오와 혼재되어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인지하는 남성 주체의 이성애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남성성을 확인하려 하는 것이다. 이는 군대에 들어오는 모든 남성이 이성애자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따라서 성매매의 경험을 포함하여 여성을 얼마나 '파악했느냐' 하는 것이 남성성의 척도로서 여겨지며 그 경험은

모든 이들에게 공유되어 하나의 재미난 이야기거리로 전락한다. 군대에서 여자연예인을 소비하는 방식 또한 다르지 않다. '여자연예인이 치마를 입고 나오면 아래에서 치마를 들여다보려 했다'는, 전역한 한 남성연예인이 우스갯소리로 말한 경험 역시 군대에서 여자연예인을 성애화하며 소비하는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여성은 인격체를 가진 한 인간이 아니라 이성애자 남성의 욕망을 아낌없이 투사할 수 있는, 대상화된 육체로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성애자남성중심적 시각은 앞서 말했듯 남성성을 증명하고 남성연대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 않거나 무관심하면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핀잔을 듣거나 남성 연대에 어울리지 못하고 '자연스레' 배제된다.



이렇듯 군대는 가부장적 권력 관계를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제로서, 폭력, 여성혐오,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를 남성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서 각각 정당화하고 각 성원들에게 내재화시킨다. 계급에 근거해 자신보다 권력적 지위가 낮은 이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며, 여성을 타자화시킴으로써 성별권력관계에 기반한 남성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군대의 작동기제가 사회의 기존 권력관계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함으로써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성을 재생산하고 강화시킨다는 데 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한 선생들의 폭력이 정당화되고, 회사같은 조직에서는 관료제에 입각한 상명하복이 요구된다. 또한 여성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가치를 버리고 남성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조직에서 소외되거나 배제당하게 된다. 이것은 군대와 유사한 형태의 억압과 폭력이 군대 외부의 사회에서도 일상적으로

3. 헌법 제 39조 ①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4. 이미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여성들이 겪고 있는 끊임없는 성적 대상화나 승진 기회의 박탈 같은 성차별을 생각해보면, 여성이 병역을 통해 기존의 중심성에 포섭되는 것조차 녹록치 않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군대를 통해 내재화된 가부장적 남성중심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문제제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 심지어는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결국 군대는 가부장적 남성중심성이 가하는 폭력과 억압을 체화된 개인을 계속해서 양산함으로써 사회의 남성중심성을 지속하고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병역을 이행했다는 것은 국가가 내린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회의 '국민'이 되기 위한 충분한 자격을 갖췄다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다³. 그런데 그 '국민'이 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고 폭력적인 남성 중심 문화를 충실히 내재화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그 경험은 군대를 나온다고 해서 지워지는 것이 아니다. 아니, 실상 그 경험은 사회 전반에 계속해서 가부장적 권력관계를 확산시키고 유지하기 위한 국가의 의도에 필연적으로 부합한다. 또한 자의적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징병제를 통해 국가의 의도는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된다. 이렇게 군대에 간 사람들이 가부장적 국가가 요구하는 가치를 충실히 학습함으로써 사회의 중심성에 포섭되는 반면, 군대에 가지 않은, 혹은 가지 못한 여성/장애인/비이성애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나 (합법적인) 군 미필자들은 자동적

으로 중심성에서 배제된다. 이들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 승진, 연봉 등과 같은 여러 측면에서 공식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군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자격 또한 상실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지위와 발언권을 얻기 위해 병역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국민'에 편입되는 것은, 잘해봐야 기존의 중심성에 포섭되는 것 이외의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다⁴. 이러한 방식은 또다시 '국민'으로부터 배제되는 또 다른 외부적 존재를 낳을 것이며, 권력관계는 계속 공고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많은 여성이 군대에 가게 되면 군사문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군대라는 공간 자체가 이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성된 공간인가를 생각하면 누가 군대에 들어가든 군대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여성도 군대에 가는 것이 군대가 가진 가부장적 폭력성에 대한 대안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오히려 병역을 거부하고 병역 거부를 지지하는 것이 '국민'의 기준에 문제제기하고, 국가에 의해 정당화되는 권력관계와 이와 맞물려 작동하는 폭력적인 남성중심성을 거부하는 방식일 수 있다.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병역 거부를 이야기함으로써 가부장적 권력관계가 극대화된 공간인 군대와, 이 공간에 집단적으로 인간을 밀어 넣어 훈육하는 국가의 강압적인 폭력에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www.paulatroxier.com

누가 여성아이돌을 만드는가?

결 그를 전성시대라 하였던가. 요즘은 어디든 여성아이돌에 대한 이야기뿐이다. 비단 노래나 춤이 유행하는 것을 넘어서서, 여성아이돌의 이미지가 동대문과 휴대폰 광고에서 판매되는 것은 물론이요 심지어는 세계도시축전 같은 정부행사까지 여성 아이돌이 장악하고 있는 판국이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걸그룹의 물줄기를 그려모아 거대한 홍수로 만들어내는 것은 시청자, 네티즌, 소비자의 힘이다. 여성아이돌을 소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기획사가 제공하는 음원이나 방송사가 만든 영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여성아이돌이 춤을 추는 영상 중에서 가장 섹시한 3초를 골라내어 몰팔¹로 만들고, 방송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오롯이 공유하기 위해 직캠²을 촬영하여 올린다. 그들은 게시물과 댓글로 아이돌에 대한 감상을 주고받다가 별안간 '꿀벅지' 같은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전파한다. 그렇게 만들어진 특정한 이미지나 신조어는 연예면 기사나 토크쇼에 등장하여 기존에 기획사에서 의도했던 이미지를 구체화하거나 확대하거나 바꾸거나하면서 여성아이돌의 컨셉을 재생산하게 된다. 이렇게 걸그룹 전성시대는 젊고 아름다운 여성아이돌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엔터테인먼트 산

업과 자신의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여성아이돌의 이미지를 재생산하는 소비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렇게 복잡한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하는 여성아이돌의 이미지라는 것이 참으로 천편일률적이라는 사실이다. 1990년대에도, 2000년대에도, 여성아이돌의 이미지는 <귀엽고 순진한 소녀>와 <섹시하고 카리스마 있는 팜프파탈>의 단 두 가지만을 오가고 있다. 아이돌이 이 시대의 판타지를 투영하는 존재라고 할 때, 이러한 여성아이돌의 두 가지 이미지는 이 시대가 가장 원하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현실화하여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소녀>와 <팜프파탈>이라는 섹슈얼리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한 손에 꼭 안을 수 있는 요정, 지켜주고 싶은 순

1. 몰팔이란 플래시 파일의 형태로 만든 짧은 영상을 말한다.
2. 직캠이란 팬들이 자신의 캠코더로 콘서트나 프로그램에 출연한 연예인을 직접 촬영한 영상을 말한다.

진한 소녀는 가부장이 보호하고 권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범위의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나를 꿈꾸 못하게 만드는 카이저, 노출과 섹스어필에 능한 팜프파탈은 가부장이 죄의식 없이 대상화할 수 있고 노골적으로 성욕을 드러내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여성 섹슈얼리티이다. 이처럼 〈소녀〉와 〈팜프파탈〉은 매우 다른 컨셉처럼 보이지만 기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상상되는 이분법적인 여성 섹슈얼리티라는 점에서는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 시대 여성아이돌을 둘러싼 욕망의 지형도를 그려보기 위해 물어야 할 것은 어떤 행위자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여성아이돌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가하는 그 구체적인 과정 일 것이다. 일상에 존재하는, 존재할 수 있는 무수한 여성 섹슈얼리티 중에서 왜 이 두 가지 섹슈얼리티만이 상품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는가? 무수한 섹슈얼리티를 갈망하는 다양한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의 시선에서 여성아이돌이 길러지고, 누구의 시선으로 여성아이돌이 재현되는가?

여성아이돌을 만드는 산업의 전반에서 작동하는 것은 남성적 시선이다. 남성적 시선이란 가부장제 사회에서 이성애자 남성의 관점을 상징하는 말로서 여성을 가부장적 잣대로 성적 대상화하는 시선을 뜻한다. 이러한 남성적 시선은 아이돌을 만드는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아이돌을 소비하는 시청자, 네티즌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맞물려 부풀려지고 있다.

먼저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살펴보면 그 구조가 남성중심적으로 짜여있음을 알 수 있다. 이때 남성중심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해부학적 남성이 산업종사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남자답다'고 여겨지는 특정한 남성성, 즉 자본과 권력을 가진 남성성이 산업 전반에 요구되고 그러한 남성성에 따라 생산과정이 이끌려가고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결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아이돌의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 통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거리가 이러한 남성성을 지니고 있다. 아이돌 등용문인 기획사를 운영하려면 거대한 자본과

막강한 연줄이 필요하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남성연대에 편입하기 쉬운 것은 남자다운 남성이다. 아이돌의 특정한 포즈나 신체부위를 잡아내는 음악방송 카메라맨이나 CF촬영 사진사가 되려면? 기계를 잘 다루는 기술과 무거운 기기를 부어잡는 근력이 필요하고, 이러한 테크닉을 가졌다고 상정되는 것은 남자다운 남성이다. 방송을 총괄하고 거기서 장기적인 이윤을 건재내는 포인트를 끌고 가는 감독이나 총책임자가 되려면? 이 사회에서 누군가를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은 남자다운 남성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처럼 남성중심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여성은 아이돌의 위치, 즉 이미 짜여진 기획과 편에 맞추어 자신을 재현해야하는 위치에서만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상징하는 여성아이돌의 소



matsunori shiori

비자 역시 남성이긴 마찬가지다. 연예산업이 이윤을 만들어 내기 위해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줘야 할 기준이 되는 '일반적'인 소비자란 당연히 여성을 욕망하는 이성애자 남성의 섹슈얼리티를 가진 자로 상정되는 것이다. 때문에 여성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좋은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맹세를 하거나, 춤을 추면서 특정한 부위를 부각시키며 성애화하기 좋은 육체를 만들어야 한다. 게다가 여성아이들의 섹슈얼리티는 무대만이 아니라 파파라치 사진, 미니홈피, 버라이어티 쇼 출연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성아이들은 이때 노출되는 '평소' 모습까지 '욕망할 수 있는' 여성의 이미지에 맞아야 할지라도 훈련받는다. 이를 위해 연습생 기간에는 단지 노래연습만 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 걸음걸이, 표정까지 지도 받는다. 이렇게 자신을 재현하는 모든 영역을 훈련하면서 그녀들이 체화하게 되는 것은 굵은 목소리보다는 높고 명랑한 목소리, 팔자걸음보다는 모델 워킹, 무표정보다는 방긋방긋 웃는 표정 혹은 섹시해 보이는 표정이다.

matsumoto shiori



이렇게 기획사가 원하는 컨셉, 매니저가 요구하는 생활과 연습생에 대한 평가기준이 이미 남성적 시선에 맞추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성아이들은 남성적 시선을 내면화하고 스스로를 타자화하여 평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성아이들은 이렇게 내면화된 시선에 맞추어 언제든지 '욕망될 수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 외에는 스타가 되는 다른 방법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스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 자체의 구성과, 그로 인해 가정되는 일반적인 소비자의 시선이 맞물리는 속에서 여성아이들은 특정한 섹슈얼리티를 재현하게 된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아이들이 재현되는 방식을 되짚어보면 여성아이들을 소비하는 과정에서의 남성적 시선을 통감할 수 있다. 서두에서 얘기했듯 많은 사람들이 사진, 영상이나 플짤 등으로 여성아이들과 관련한 게시물을 만들고, 댓글로 반응을 교환하면서 다시 한 번 여성아이들의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장치는 보는 소비자와 보이는 아이들의 구도이다. 누군가를 본다는 것은 단순히 중립적인 행위가 아니다. 누가 보고 누가 보여지는가의 문제는 곧 사람들의 관계에서 누구의 시선이 당연히 되는가 그래서 누가 그러한 시선에 맞추어 자신을 재현할 수밖에 없는가의 문제와 이어지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인 여성아이들이 카메라 바깥에 있는 모습까지, 모든 스케줄의 흔적까지 직접 보고 싶어 하는 이유도 이러한 시선과 관련이 있다. 아이들의 일상을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녀들을 온전히 가질 수 있다는 느낌,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여성아이들은 보여지는 대상으로서만 존재할 뿐, 자신이 재현되는 방식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 같은 것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구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시물의 내용 역시 남성적 시선의 현신이기도 하다. 여성아이들의 눈, 입술, 쇄골과 같이 몸의 특정한 부분을 분절화하여 게시하는 장면을 보자. 이때 여성아이들의 몸은 유기적인 인격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의 '입맛대로 나눌 수 있는 사물'로서 존재하게 된다. 그 가운데서도 내리깔았거나 둥글게 눈웃음치는

눈, 살짝 벌렸거나 매끈한 입술, 벗은 몸의 가냘팜과 연결되는 쇠골을 주요하게 게시하는 것을 보아도 여성의 몸 가운데 성애화되기 쉬운 부분을 성애화되기 쉬운 방식으로 재현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시선은 플짤을 만들 때 여성아이돌이 웅크리는 순간이나 섹시한 몸을 부각하면서 웨이브하는 순간을 골라 게시하는 장면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시물에 반응하여 '꿀벅지'와 같은 성폭력적인 단어들이 만들어지고, 남성의 자위를 연상시키는 의성어가 거리낌 없이 댓글로 달릴 수 있는 이유는 그곳이 남성중심적인 시선이 당연시되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미 인터넷 공간 자체가 여성을 정복하려는 남성 성욕을 거리낌 없이 표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남성독점적 연예 산업에서 만들어진 여성아이돌을 소비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남성적 시선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아이돌이 가질 수 있는 이미지는 결국 남성에게 쉽게 욕망되어질 수 있는 <소녀>와 <팜파탈>의 틀에 박혀버리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아이돌이 그 비좁은 두 가지 섹슈얼리티를 벗어나게 되면 연예인으로서의 생명도 끝나기 십상이다. 전반적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 인기가 점점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연애를 자주 하거나 예전 애인과의 연애사가 노출되어 '순결한' 여성의 이미지에서 벗어난다면 비난받고 퇴출당하는 게 다반사이다. 게다가 더 심각한 것은 자신이 어떤 음악을 하고 싶고 어떤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볼 틈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로, 한번 인기를 얻은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과 CF에 마구잡이로 출연하도록 요구받는다는 사실이다. 쉽게 질리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소녀>와 <팜파탈>이라는 극단적인 이미지를 오가는 와중에, 여성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흔히 얘기하는 '변신'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성아이돌은 기획사와 소비자가 중용하는 제한된 섹슈얼리티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 길, 그래서 결국 자신을 소진하는 길밖에 다른 비전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matsumoto shiori

여성아이돌은 모두가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로 자신의 삶이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나는 여성아이돌의 삶이 나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러한 삶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는가? 애초에 <소녀>나 <팜파탈>이 되어야만 연예인이 될 수 있는 수순 자체가 이미 가부장적 시선으로 구성된 나의 욕망과 그걸 팔아먹는 연예 산업의 구조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나 역시 남성적 시선을 내면화하여 일상적으로 타인을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역시 여성아이돌에 들이대는 가부장적 잣대로 재단되고 평가받고 있지는 않은가? 여성아이돌의 삶과 나의 삶은 결코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어떤 여성을 욕망하는지, 다른 이가 나를 어떠한 시선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것이 가부장적 시선에서 상정되는 여성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보인다. 그러한 가부장적 시선에 의해 상품으로 만들어지는 여성아이돌의 삶과 일상적으로 가부장적 시선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보인다.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모두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사실은 꽤나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존재와 다른 존재의 관계는 항상 어떠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그러한 맥락을 충분히 성찰하면서 다르게 관계 맺어갈 가능성을 다시 열어주기도 할 것이다. ●

선본원 대담

젠더 규범을 횡단하며

처음 왜 이 수다가 시작되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처음에 누군가가 엄마가 자신의 옷을 버렸던 이야기를 시작했고, 누군가가 자신의 노트에 이를 고적이기 시작했고, 수다가 무르익어 가지 FMP를 가지고 있던 누군가가 녹음해도 되냐는 동의를 구한 후 녹음을 하기 시작해 36분의 녹음파일을 만들어낸 것이 이 글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노트에 고적이었던 글과 어느 순간부터 녹음된 파일을 가지고 임의로 정리하여 이 글을 쓴 나의 이름은 라하이고, 한가했던 어느 오후에 함께 했던 이 수다에는 키크와 안티포디안과 알로하가 함께해주었다.

알로하 나, 언젠가 우리 엄마가 내가 거지같이 하고 다닌다고 내 옷장에 있는 옷들을 거의 버린 적이 있었어. 엄마가 맘에 드는 옷들을 제외하고

(모두들 헉 하며 관심 집중)

안티포디안 엄마가 왜 그랬던 건데?

알로하 몰라. 엄마가 막 울었어. 왜 너는 너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냐고 말하면서. 엄마는 자신이 날 너무 내팽개쳐서, 관심을 쏟아주지 못해서 내가 그런 게 된 것 같으면서 울었어.

라하 헉, 우리 엄마도, 내가 레게머리하고 다녔을 때, 너무 창피하다면서 “대체 왜 이러는 거냐”면서 울었는데.

알로하 엄마는 왜 내가 하고 다니는 스타일을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걸까? 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안티포디안 나는 5살 때 엄마가 치마 사와서 입혔는데 내가 안 입는다고 해서 엄마한테 맞았어. 엄마가 날 때리고 나서 화가 나서 사왔던 치마를 찢았었어.

라하 지금은? 지금도 치마 안 입는다고 혼나?

안티포디안 아니.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긴 해. 엄마는 가끔 아직도 치마를 안 입는 날 보고 “그때 그렇게 맞고도 정신 못 차렸나?” 그러면서 웃고. 그런데 문제는 친척집이야. 친척집을 들어서는 순간, 온갖 평가가 시작되고, 온갖 조언들이 넘쳐나. “이빨부터 하면 되겠네”부터 시작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성형 견적을 뽑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트집 잡고.

알로하 나도 친척집이 정말 공포야. 친척집 갈 때 엄마가 날 예쁘게 해서 데리고 가려고 무지 노력해. 그래서 친척들한테 “알로하, 서울을 먹더니 예뻐졌네”란 말을 들으면 엄마는 뭐랄까 자신의 임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더라.

키크 웬만해선 그런 평가들엔 이제 좀 초연해졌는데, 친척집은 아직도 공포야. 우리 언니가 지금 거의 서른 살인데, 친척집에 가면 너무 사생활에 간섭하려 들고,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주니까 힘들어해. 으악, 나도 이제 몇 년 후면 그렇게 되겠지?

나 이번에 머리 되게 짧게 잘랐잖아. 엄마, 언니, 할머니, 친척들한테 파격을 좀 줄 생각으로 자른 거였어. 그런데 자르고 나서 사람들이 “예뻐보인다, 날씬해 보인다.” 라고 칭찬을 하는거야. 요즘 짧은 머리의 스타일리시한 여자스타들이 많잖아. 내가 머리를 짧게 한 것이 사람들에게겐 그런 맥락에서 받아들여진 거지. 그건 좀 씁쓸했지만 뭐, 개인적으로 머리를 짧게 하고나서 생긴 재미있는 점도 많아. 몸을 움직이는 범위가 더 넓어지고 자연스러워졌어. 더 크게 행동하고, 휘적휘적 걷고 다리도 더 많이 벌리고, 머리 길이가 짧아진 것만으로도 몸의 움직임이 한층 자연스러워졌다는 건 참 재미있는 것 같아.

라하 맞아, 나도 머리 짧았을 땐 내 몸의 범위가 더 넓었던 것 같아. 지금은 머리로 길고, 그에 맞는 옷들을 입으니까 확실히 몸의 움직임을 내 스스로 줄이게 되었지만.

키크 머리 길이만으로 성별이 구분된다는 것도 재미있어. 애, 나

뭔가 재미있는 일 있었다. 최근에 나랑 비슷하게 머리가 짧은 친구랑 둘이 걸어가는데 우리 뒷모습을 보고 어떤 할머니가 아기랑 얘기하다가 그 아기한테 우리를 가리키며 “저기 오빠들한테 물어봐”라고 했다가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황급히 “아 저기 언니들”하고 바꾸는 거야. 뭔가 기분 좋았어. 사람들은 딱 보면 머리 길이 같은 걸로 ‘여/남’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훗.

알로하도 최근에 머리 짧게 잘랐잖아. 머리 자르고 어땠어?

알로하 대학 들어오기 전에 이만큼 머리가 길었던 적이 없어. 근데 뭔가 대학생이 되니까, 정확히는 ‘여대생’이 되었으니, 길러야 될 것만 같아서 길렸어. 그런데 사실은 난 어렸을 때 머리 긴 게 되게 싫었어. 여성적으로 보이는 게 싫었달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적인 존재로 보이고 싶었어. 여성은 약하고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했고, 난 그런 존재가 되기 싫고, 남자들에게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싫고. 그래서 택한 게 어중간한 거였어. 머리를 길게 하고 치마를 예쁘게 입는 여자 친구들을 보면 “재네는 여자로 보이려고 하는구나. 체” 이런 생각했었어. 나는 그렇게 하기 싫고...음.. 뭐랄까..

라하 괜히 자존심 상하는 게

알로하 그래 맞아 자존심 상했었어. 그런 식으로 날 재현하는 게. 그런데 지금은 머리는 짧지만 치마도 자주 입고 그러는데.(웃음) 그전에는 뭔가 여성을 열등한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재현되고 싶지 않았나봐. 난 여성주의를 공부하면서부터 오히려 치마를 더 입을 수 있게 되었어. ‘여자라서, 치마를 입어야 되서’ 입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서 입는 거라는 과정으로 건너뛰고 나니, 똑같이 ‘치마를 입는다’는 행위가 나한테는 의미가 달라진 거지.

라하 나도 이런 적 있어 수업 같이 듣는 사람랑 백양로 내려오다가, 여성주의 소모임에서 활동하는 친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수업 같이 듣는 사람한테 ‘여성주의 소모임 같이하는 친구’라고 소개해줬거든. 그런데 그 여성주의자 친구가 패션에 관심이 많은 친구여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구두도 신고, 화장도 하고, 이것저것 특이하고 예쁜 악세서리도 많이 하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한테 “음.. 여성주의자들은 힐신고 화장하고 치마 입은 여자들 싫어할 것만 같았는데, 저분은 되게 패셔너블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때 알았지. 여성주의, 혹은 여성주의자에 대한 지독한 오해와 편견

들이 있다는 걸.

알로하 맞아, 그런 오해들 정말 있지..

라하 하지만 나도 알로하처럼 여성주의 덕분에 더 자유로워졌거든. 예전엔 뭔가 ‘남성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것들을 하는 것만이 젠더 규범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충동이 많았지. 하지만 지금은 전형적인 여대생으로 보일까봐 입지 못했던 치마도 입고, 하늘거리는 드레스도 입고, 여성주의 덕분에 더 다양한 내 모습을 긍정하게 된 건 확실해.

라하 라하가 아까 말했던 것 중에, 예전엔 소위 ‘남자가 하는 행동’들을 하는 게 젠더규범을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했다고 그랬잖아. 그치만 내가 소위 ‘여성적’인 옷을 입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다른 해석들을 만들어내고 싶어 하는 것도 젠더 규범을 조금씩 해집는 거 아닐까.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원하는 지 어떤 걸 욕망하는 지에 대해 생각하는 거 자체도 그렇고.

알로하 맞아 내가 어떤 게 좋고, 그걸 왜 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계속해서 질문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라하 근데 사실 그런 걸 묻는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또 벗어나기 쉬운 것도 아니긴 하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나의 욕망이고, 여기부터는 주입된 이미지이다 뭐 이렇게 딱 나눌 수 없기도 하고, 하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같이 얘기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닐까.



우리들의 수다는 이 뒤로도 계속 이어졌고, 누군가의 농담에 웃기도 했다가 뭔가 답답한 현실에 우울해하기도 하며 오후 한나절을 함께 보냈다. 성별에 따라 기대되는 나의 행동, 나의 스타일, 나의 몸. 그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 내게 가해지는 충충한 압박들. 성별에 의해 기대되는 공고한 이미지의 틀에서 나조차 자유롭지 않았던 경험들. 실은 이런 수다는 우리에게 꽤 잦은 일상이었다.

자연이 주어 단편적인 이야기를 실을 수 밖에 없는 아쉬움과 함께 이 글을 읽으며 어딘가 모르게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다시 한번 돌아켜본 사람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심포시 해본다. 앞으로 도 이어질 우리들의 수다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는 상상도 함께 우리들의 대화는 더 풍성해지겠지. ●



한눈에 보는 〈speak-out〉의 공약



성폭력 각본을 깨는 反성폭력 운동!

1. 학생 자치 활동에서 反성폭력 말하기

- OT, 새터 등에서 성폭력 자치규약과 간담회를 통해 反성폭력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해나가겠습니다.

2. 反성폭력 주간 행사

- 학교 전반에 성폭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단과대 학생회와 함께 反성폭력 주간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3. 비가시화된 성폭력 드러내기

- 데이트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 동성간 성폭력, 환경적 성폭력 등 비가시화된 성폭력을 드러냄으로써 기존의 성폭력 각본을 깨는 담론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 여성 섹슈얼리티 말하기

- 가해자중심적인 성폭력 각본에서는 말해지지 않았던 여성 섹슈얼리티를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나 관계를 말하다

1. 탈이성애중심주의 문화제

- 이성애중심주의를 벗어난 다양한 정체성과 관계를 드러내는 문화제를 기획하겠습니다.

2. 학내 호모포비아에 대한 문제제기

- 비이성애중심성에 대해 직간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학내 호모포비아에 대해 문제제기하겠습니다.
- 강의실 및 학내 커뮤니티에서 자행되는 호모포비아 발언에 대해 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겠습니다.

3. 학내외 성소수자 단체와의 연대

- 성소수자 이슈에 대해 학내외 성소수자 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담론화하겠습니다.

간하지 않는 몸, 긍정하며 피워 올리다

1. 몸 프로젝트 팀 활동

- 몸 프로젝트 팀을 꾸려 전대규범에 갇혀있던 몸을 함께 바꾸어 나가는 일상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 몸바꾸기 워크샵

-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몸바꾸기와 관련한 워크샵을 주최하겠습니다.

3. 외부 여성주의 단체와의 연대

- 다른 몸의 가능성을 실현해 온 외부 여성주의 단체와 연대하겠습니다.

일상의 작고 힘 있는 한 걸음, 에코페미니즘

1. 에코페미니즘 팀 활동

- 에코페미니즘 팀을 꾸려 생태적인 일상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 생태적 학생 자치활동 만들기

- 일회용품을 덜 쓰고 로컬푸드를 사용하여 성별분업에 반대하는 대동제 생태 장터를 과/반에 제안하겠습니다.
- 아카리카/연고제 행사의 과도한 쓰레기 및 분리수거 문제와 관련하여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3. 학교공간을 생태적으로 재구성하기

- 학교 식당에 자기 컵 쓰기와 채식식단·로컬푸드 식단을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비생태적인 생수산업에 문제제기하며 식수대 설치 및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여학생 교육권을 펼치다!

1. 여성주의와 친해지기

- 교양 필수 혹은 프레시맨 세미나에 여성학 수업 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 여학생 수첩이나 매체 등을 통해 여성학 수업의 소개와 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2. 여학생의 경험을 반영하는 학교 공간 그려나가기

- 단과대 학생회와 연계하여 여학생 휴게실 개선 사업을 기획, 진행하겠습니다.
- 학내 비상벨의 현황을 파악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밤길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하교길의 가로등 설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여학생 샤워실 확충을 요구하겠습니다.

여성주의 프리즘! 무지갯빛 목소리

1. 여성주의로 소통하기

- 여학생의 경험을 반영하고 여성주의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담은 여학생 수첩을 발간하겠습니다.
- 여성주의 매체와 총여학생회 소식지를 발행하겠습니다.
- 일상의 고민을 여성주의적으로 풀어내는 장으로서 여성주의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 여성주의를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낼 수 있는 여성제를 개최하겠습니다.

speaK-out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경계를 훌트리며 차오르는 이야기

〈speaK-out〉선본에
많은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2대 총여학생회를 준비하는 최정 별 · 양김 민지와 함께하는 사람들